

석사학위논문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초등학교 읽기 교수-학습 모형 연구

지도교수 문 성 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윤 정 애

2000년 8월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초등학교 읽기 교수-학습 모형 연구

지도교수 문성숙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0년 5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윤정애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0년 6월 일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심사위원

안김문

성지성

유영숙



《국문초록》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초등학교 읽기 교수-학습 모형 연구

윤 정 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문 성 숙

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에게 사고를 언어로 표현하고, 또 언어를 통해 사고를 이해하는 고등 정신기능을 신장시켜 주는 것이다. 이 연구는 국어과 교육에서의 사고력 신장, 그 중에서도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읽기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II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읽기와 창의적 사고에 관한 논의를 정리해 보았다. 읽기는 글 측면을 강조한 상향식 모형, 독자 측면을 강조한 하향식 모형, 글과 독자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상호작용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읽기에 대한 여러 논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그 개념과 성격을 정리하고, 읽기 기능의 요소를 고찰하여 이들은 어떤 특정한 위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을 밝혔다. 효율적인 읽기를 위해서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의 과정에 따른 전략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창의적 사고에는 지적 능력, 정의적 특성, 문제 해결력, 종합 행위로 보는 관점들이 있다. 이 연구에서 창의적 사고란 특정한 반응에 얽매이지 않고 무엇인가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산출해 내는데 사용되는 지적 과정으로 보았다. 인지적 능력의 하위 요인은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을 들 수 있다.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수업활동 속에서 이들을 신장시키기 위한 지도기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추론하기, 예견하기, 브레인스토밍,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기, 관계 없는 것끼리 짝

※ 이 논문은 200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짓기, 의견 다루기(PMI), 마인드 맵하기 같은 학습전략을 개발하여 연구자가 받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4주간에 걸쳐 직접교수법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였다.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교사의 발문은 확산적 발문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효과적 발문기법을 학습단계별로 제시·적용하였다.

창의적 사고와 읽기 교육과의 관계에서 읽기 영역이 사고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밝혀 사고력 신장 기능으로서의 읽기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Ⅲ장에서는 Ⅱ장의 이론과 기존 읽기 수업 모형 고찰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읽기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적용해 보았다. 읽기 수업의 내용은 글 속에 담긴 내용이 아니라 글을 이해하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소극적인 수용자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수용자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수-학습 방법이 요청된다. 이에 읽기 교수-학습 모형을 문제 → 이해 → 사고 → 표현의 4단계로 구안하였다. 문제 단계는 학습동기 유발과 공부할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이며, 이해단계는 학습문제 해결 전략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사고단계란 전략에 따라 학습자 스스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며, 표현단계는 글 내용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새롭게 표현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들은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된 사고를 자신의 언어로 구상하고 표현하고 발표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움'에 이르게 하는 단계이다. 각 학습 단계별로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이 전개되도록 하였다. 교수-학습 모형은 글의 유형과 특성에 맞게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문학 교재와 비문학 교재로 구분하여 14주에 걸쳐 연구자가 받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시간에 적용하였다.

이 연구 결과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창의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교사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이 전개되어야 하며, 읽기 지도는 독해 과정을 중심으로 글을 읽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의 사고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확산적 발문을 사용하는 훌륭한 발문자가 되어야 하고,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읽기 교수-학습 모형이 시급히 정립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차 례

〈국문초록〉	i
Ⅰ. 서 본	1
1. 연구의 목적	1
2. 선행 연구 고찰	4
3. 연구 방법 및 한계	8
Ⅱ. 읽기와 창의적 사고	10
1. 읽기의 본질	10
2. 창의적 사고	17
3. 창의적 사고와 읽기 교육	42
Ⅲ. 읽기 교수-학습 모형 구안	47
1. 읽기 수업 모형 고찰	47
2. 읽기 교수-학습 모형 구안	54
3. 읽기 교수-학습 모형 적용의 실제	60
Ⅳ. 결론	79
참 고 문 헌	82
<Abstract>	85

표 차 례

.표 1> 창의성 하위요인의 지도기법	23
<표 2> 창의적 사고력 신장 전략	24
<표 3> 사고기능과 읽기 기능 요소	45
<표 4> 문학 교재 읽기 교수-학습 모형	56
<표 5> 비문학 교재 읽기 교수-학습 모형	58
<표 6> 문학 교재	68
<표 7> 비문학 교재	74



<그림 1> 직접 교수법	25
---------------------	----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화·세계화 사회가 될 것이다. 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은 교통·통신의 대변혁을 가져왔고, 세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어 지구촌시대의 개막을 앞당기고 있다. 고도화된 산업사회로 사회·경제·문화의 변화 폭이 커지고 가속화되어 미래 사회를 예측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특히 컴퓨터 산업을 비롯한 첨단 정보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정보, 지식산업이 고도화되었다. 지구촌 곳곳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 배출되는 새 정보나 기술은 어제의 지식들을 낡은 것, 쓸모 없는 것으로 만들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능동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하고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관이나 신념, 지식, 사고방식 등을 혁신하고, 급속한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빠른 변화에 적응하며 미래를 내다보고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 신장이 삶의 기본 조건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창의적 사고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비판·종합하는 능력과 새로이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이다. 창의적 사고는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발달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와 같은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해나갈 우리 아동들도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쏟아지는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취사선택하고 유용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즉 창의적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

이에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21세기적인 사회와 개인의 삶에 적합성을 가진 교육과정의 추구라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새 천년에 적합한 인간상을 건강

한 사람, 자수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다¹⁾라고 명시하였다. 이중 창의적인 사람이란 창의적 사고능력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능력과, 변화하는 여건에 슬기롭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새로운 것을 산출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제6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에서도 국어과목을 언어사용 기능·언어·문학의 세 영역²⁾으로 나누고 있다. 언어사용 기능은 의사소통 기능으로서의 표현 기능과 이해능력을 길러주며 이를 통해 합리적이며 창의적 사고력을 길러준다고 하여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 언어사용 기능 영역은 다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읽기 교육은 궁극적인 목표가 언어사용 능력의 신장에 두고 있는 국어과 교육의 영역 중 하나이다. 그 지향점은 학생들이 어떤 종류의 글이든 주어진 글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고를 유도, 촉진하는 것이다. 과정을 통해 그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사고 기능을 기를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학교 교육은 아동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함양시키는 데 오히려 발목을 잡는 데 기여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학생과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몇몇 지식을 암기하고 주입하기에 여념이 없다. 평가 또한 오로지 한 가지 정답만을 요구하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해답보다는 출제자의 의도에 맞아야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사지택일형 검사에 의존하고 있어 학생의 발달한 상상력과 사고력을 위축시키고 있다.³⁾

초등학교 국어과 읽기 교육도 이런 현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제6차 교육과정에 직접 교수법의 수업 모형이 소개되기 전까지는 교사들의 읽기 수업이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즉 교사가 글의 특성이나 단원 설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는 수업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매 단원마다 천편일률적으로 문단 나누기, 줄거리 파악하기, 중심생각 찾기 등에 그치고 있었던 것이다. 읽기 수업이 대부분 독해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도 글의 내용 이해와 기억 여부를

1) 교육부(1993),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p.33-36.

2) 상계서, p.116.

3) 허경철 외(1989),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Ⅲ)」, 한국교육개발원, p.19.

묻는 결과 중심의 평가적 수업에만 치중하여 진정한 의미의 독해학습으로 볼 수가 없었다.

본질적으로 읽기는 단순히 정보를 수용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 입각하여 이를 해석, 비판하는 의미 구성의 과정⁴⁾이다. 이 과정을 통해 고등수준의 사고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읽기 수업에서는 글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읽기 수업에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기존의 읽기 교육은 교사 중심으로 단편적인 글의 내용 이해와 기억 여부를 묻는 결과 중심의 읽기 교육에 치중해 왔다. 읽기 수업을 통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글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못했고, 학생들은 교사가 설명해 주는 것을 받아 적고 외기만 하는 방식이었다. 읽기 교육이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게 되었다.

교육 현장에서의 읽기 교육이 학생들의 언어사용 측면보다는 단편적인 지식 암기 위주의 교육이 된 이유는 교수-학습방식이 옛날과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구태의연한 강의 일변도와 문답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있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언어사용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 방법, 교육 자료, 평가 방법의 연구 및 개발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국어과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사고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명료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둘째, 그에 따른 지도 방법과 교수-학습 자료들이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셋째, 창의적 사고력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확산되어 교육 현장의 모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분위기의 조성이 시급하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 해결에 목표를 둔다.

첫째, 창의적 사고와 읽기의 원리를 정리하고

둘째, 창의적 사고와 읽기의 상관관계를 구명하며

4) 천경복·이재승(1998), 「읽기 교육의 이해」, 우리 교육, p. 257.

셋째,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읽기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해 보고자 한다. 구안된 모형을 학교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여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고찰

지금까지 창의적 사고력 신장 방안이나 읽기 지도, 읽기 전략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읽기 교수-학습 모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이론 및 전략들과 한국 교육개발원의 사고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읽기 지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여 창의적 사고와 읽기 지도의 이론적 근거를 정립하고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읽기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고자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사고력 신장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우리 교육 현실에 사고 교육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는 목적 아래, 사고 교육의 성격과 목표, 내용과 방법을 명료화하고, 사고 교육의 의의와 방향, 사고의 구성요소, 사고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이론적 배경으로 사고력 신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프로그램을 개정, 확대 보급 방안을 탐색하였다.⁵⁾ 이 연구에서 시사 받은 점은 적절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문제 해결 능력, 즉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이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사고모형은 연구자의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미경⁶⁾은 질문유형이 창의성 신장에 주는 효과를 연구하여 교사의 질문 유형이 창의성 신장에 큰 영향을 줌을 밝혀냄으로써 교사의 발문이 학습자의 사고를 확장하고 창의성을 개발시킬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발문기법은 이 연구에서 창의적 사고를 확장시키는 주요 전략으로 설정하는데 토대가 되었다.

5) 허경철 외(1987~1991).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I·II·III·IV·V」, 한국교육개발원.

6) 이미경(1990), “질문유형(발산적-수렴적)이 초등학생의 창의성 신장에 주는 효과 연구,” 碩士學位論文,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남경⁷⁾은 자아개념이 내발적 동기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하여 그것이 창의성에 깊은 영향을 주는 핵심 측면임을 밝혀 내고 있다 즉 자아 존중감이 높고 내발적 동기가 높은 학습자는 창의성 향상에 의미 있는 향상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로 접근한 이 연구는 연구자의 프로그램에 있어 교수-학습 구안 원리의 이론적 보탬이 되었다.

전라북도교육연구원⁸⁾에서는 사고력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국어과 교수 학습과 평가 방법을 연구하여 현장에 보급하였다. 국어과 읽기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 직접교수 모형을 활용한 방법, 사고방법에 의한 어휘지도 등으로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였다. 읽기 과정의 기본적인 독해 방법을 익히면 학습능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전 단원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융통성 있고 다양한 적용방법이 모색되어야겠다는 점을 시사 받았다.

한성혜⁹⁾는 고든(Gordon)의 창의성 수업 모형을 수업에 적용하여 창의성 수업모형으로 수업을 받은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검증하였다. 창의성 수업 모형에 의해 수업을 받은 학습자의 창의성 신장 효과가 창의성 하위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이는 사고 교육의 일환으로서 창의성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과 교육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준 연구였다.

신헌재·이재승¹⁰⁾은 읽기 영역에서의 이해 방법으로 집중, 회상, 추론, 해석을 들고 소집단 읽기 활동을 통한 읽기 능력 향상 방안을 연구하였다. 구연활동, 다른 장르나 매체로 바꾸기, 삽화 그리기, 영상화하기, 모방하기 등의 창의적 사고력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는 일련의 활동들은 이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최수길¹¹⁾은 수업상황에서 학습자의 초인지 유형에 따라 교사가 발문을 달리할

-
- 7) 김남경(1993), “내발적 동기와 창의적 사고력의 관계,” 碩士學位論文,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8) 전라북도교육연구원(1993), 「사고력 신장을 위한 초등학교 국어과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전라북도교육연구원.
 - 9) 한성혜(1993), “Gordon의 창의성 수업모형 적용이 아동의 창의성 신장에 미치는 영향,” 碩士學位論文,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10) 신헌재·이재승 편(1994), 「학습자 중심의 국어교육」, 서광학술자료사.
 - 11) 최수길(1996), “초인지 유형에 따른 발문수준 적용이 창의성 신장에 미치는 효과,”

때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 결과 한 집단의 학습지도시 특징 유형의 발문 위주의 학습은 학생들의 다양한 초인지 유형을 고려할 때 선체적인 창의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 내용과 단원 특성에 적합하고 개개인의 초인지 유형에 알맞은 다양한 수준의 발문을 적용했을 때 학습활동의 지속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창의성 신장에 효과가 크다는 점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김라경¹²⁾은 창의성 수업모형이 갖는 세반 이론을 고찰하고 파네스(Parnes)의 수업모형을 실험집단에 적용하여 아동의 창의성 신장에 창의성 수업모형이 주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교과시간을 통해서도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과 적용 수업 모형의 필요성을 제고하게 되었다.

박종호¹³⁾는 “창의적 읽기 지도 방법 연구”에서 학습자의 읽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창의적 읽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창의적 읽기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적용시켰다. 그 결과 읽기 능력 면에서 의미 있는 효과와, 교과교육을 통한 창의성 개발 측면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보였다. 일련의 창의적 읽기 훈련 프로그램은 이 연구의 창의적 사고 신장 전략을 개발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칠우¹⁴⁾는 국어과 교수-학습 모형을 읽기 중심으로 다섯 가지의 수업 모형을 소개하였다. 그가 소개한 수업 모형들은 미국에서 개발되어 현장 적용 실험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검증되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연구가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서는 수업모형 적용에 있어 글의 특성이나 내용에 알맞은 방법을 선택해야 함을 시사 받았다.

최영희¹⁵⁾는 읽기 과성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읽기 지도 요소를 13개 항목과 그 하위 요소로 제시했다. 13개 항목의 선정 이유와 하위 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국어과 교육과정 읽기 영역을 초·중·고로 나누어 일목 요연하게 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2) 김라경(1997), “Parnes의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 적용이 초등학교 아동의 창의성 신장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碩士學位論文.

13) 박종호(1997), “창의적 읽기 지도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 한칠우(1991), “국어과 교수-학습 모형 및 책략,” 「한국어문교육」, 제2집.

15) 최영희(1993), “읽기 지도 요소 연구,” 碩士學位論文,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수 있도록 분석·제시했다. 13개 항목은 읽기의 원리와 특성 - 읽기의 특성, 글의 구성 원리, 읽기 기능-문자 해독, 어휘학습, 글의 구조,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감상식 읽기, 책략적인 읽기, 읽기의 태도와 습관-읽기에 대한 흥미, 읽기 태도, 읽기의 내면화(습관)이다. 읽기 지도 요소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은 읽기 교수-학습 모형 구안에 이론적 뒷받침이 되었다.

심혜옥¹⁶⁾은 이미 개발된 관련 읽기 수업 모형을 검토하여, '문제 파악-문제 추구-문제 해결-적용·발전' 등으로 구안해서 제시하였다. 문학 교재와 비문학 교재로 나누어서 제시된 교수-학습 모형은 이 연구의 읽기 교수-학습 모형 구안에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

이재승¹⁷⁾은 읽기 교육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로써 읽기 지도 모형을 상향식 모형, 하향식 모형, 산출-체제 모형, 상호작용 모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읽기의 요소와 기능을 소개하였다. 또한 읽기의 목표를 인지적인 분류학을 원용하여 목표 분류 체계를 정립하고자 시도하였다. 국어과 교육이 도구 교과로서의 위치를 굳히기 위해서는 목표 실정이나 수업평가가 단순 사실에 관한 기억에 의존하는 수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고차적인 언어 사용 기능을 유도하고 측정해야 함을 시사 받았다.

유경균¹⁸⁾은 읽기 과정에서 스키마 이외에 의미관계에 바탕을 둔 읽기 전략을 설정하여 이를 학습 전략의 일부로서 적용하는 읽기 학습을 지도함으로써, 읽기 학습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논의된 추론하기 전략은 이 연구의 창의적 사고력 신장의 추론하기 전략 개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위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읽기 교육의 성격, 읽기 지도 요소, 읽기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읽기 능력 향상 방안, 효율적인 읽기 학습 전략 등 최근 읽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의적 사고력에 관한 연

-
- 16) 심혜옥(1994), "국어과 읽기 교수-학습 모형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17) 이재승(1994), "읽기 교육의 목표분류에 관한 연구", 「청람어문학」, 제12집,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18) 유경균(1998), "의미 관계에 바탕을 둔 읽기 능력 신장 방안," 碩士學位論文,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구도 사고 교육의 성격과 목표, 내용과 방법을 명료화하고 창의적 사고력 신장 수업 모형, 프로그램 개발·적용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향에서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읽기는 적극적인 사고 과정이며 읽기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의 고차적 사고력을 신장시켜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읽기와 창의적 사고력의 관련성, 읽기 수업 시간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습 전략, 교수-학습 모형 등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글을 읽으면서 의미를 재구성하고 창출할 수 있으려면 창의적 사고를 함양시킬 수 있는 학습 요소가 충분히 투입되어야 한다. 창의적 사고력 신장이 가능한 읽기 교수-학습 모형이 개발되어야 하고, 학생 중심의 역동적인 학습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 연구들로부터 시사 받은 점들을 토대로 창의적 사고력과 읽기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구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읽기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적용하여 창의적 사고력 신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방법 및 한계



이 연구는 읽기 교수-학습 모형 적용을 통한 창의적 사고력의 신장 가능성을 살펴는데 그 목적을 두고 국어과 교육 목표로서의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읽기 교수-학습 모형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원용한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이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창의적 사고력과 국어과 읽기 교육에 관한 논의를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창의적 사고력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정리하고, 창의적 사고력 신장 전략을 개발하였다. 또, 읽기 교육의 원리를 살펴보고 창의적 사고력과 읽기 교육의 관련성을 밝혔다. 이를 토대로 지금까지 개발된 국내외의 읽기 교수-학습 모형을 비교, 검토하여 교수-학습 모형의 구안 원리를 설정하고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읽기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적용해 보았다.

둘째, 구안된 읽기 교수-학습 모형을 실제수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제시하되 문학교재와 비문학 교재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이 모형은 교사가 실제 수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수업 단계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셋째, 구안된 읽기 교수-학습 모형을 현장에 적용해 보고 학습의 효과 및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학교 수업에의 적용 결과에 대한 검증 연구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현장수업 적용 후 학생의 반응을 수집, 학습의 효과 및 문제점을 분석,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또, 이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한 그 밖의 방안에 대한 제시 가능성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그 대상 및 방법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이 연구는 이론적 연구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였으나 실제 효용성은 현장에서 검증을 거치지 못하였다. 이 모형을 교육 현장에 적용할 때에는 학교 제반 여건, 학습자들의 수준, 교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의 범위는 초등학교 3학년 국어과 교육 과정에 제시된 읽기 영역만을 중심으로 한다. 피아제의 연구(19)에 의하면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의 지적 발달 수준은 전 조작기(2~7세)에서 구체적 조작기(7~11세)로 이행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의 어린이들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사고의 일반적인 특징은 서로 다른 사고 양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은 이론적인 추리 능력, 변인 통제 능력을 갖추고 있고, 추상적인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 해결하려고 하며, 여러 가지 예상되는 답을 논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시작하는 연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 조작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읽기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적용함으로써 문제에 관련되는 적실한 성향, 태도, 가치관을 내면화시켜 준다. 그 다음 문제에 관련되는 고차원적 사고 능력 및 비시적 하위인지 조작 능력을 신장시켜 주며, 문제에 관련되는

19) 노명완 외(1989), 「국어과 사고력 신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안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pp.105~106에서 재인용.

지식, 정보, 사실들이 통합되는 지적 경험의 소산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주는²⁰⁾ 바탕이 되게 한다.

II. 읽기와 창의적 사고

1. 읽기의 본질

읽기 지도에 앞서 읽기에 대한 명확한 본질 규명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 읽기의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지도 방법, 평가 방법 등 읽기 교육의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읽기 연구는 대체로 1970년대 이전에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관점이 가장 지배적으로 읽기 이론에 영향을 미쳐왔다. 읽기를 글의 해독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서 글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독자는 철자부터 시작하여 점차 단어, 구, 문단, 글 전체로 나아감으로써 그 글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 관점은 상향식 모형(bottom-up model)과 일맥상통한다. 상향식 모형은 고프(Gough)²¹⁾에 의해 제안된 모형으로 읽기는 의미구성 과정이 아니라 문자의 해독과정이므로, 글 내용을 단순 수용하는 것으로 본다. 읽기 기능을 여러 하위 기능들로 세분화하여 하나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익히게 되면 읽기는 완성된다고 보았다. 즉, 문자해독을 글 이해의 기초로 파악하고 글의 의미는 문자 기호의 정확한 해독에 의해 자동적으로 형성된다고 보는 글 중심 모형이다. 이 관점에서는 또 읽기 기능이나 읽기 능력은 여러 하위 요소로 나뉘어질 수 있다고 본다. 즉, 하위 기능으로 나누어서 하나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익히게 되면 읽기는 완성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철자를 익히게 하고, 단어의 뜻을 파악하게 하며, 그 다음에 구, 절, 문장 순으로 엄격히 순차적인 절차에 따라 읽기를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관점에서는 글은

20) 성일재 외(1988),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p109.

21) 천경록·이재승(1998), 전제서, pp.21-25.

하나의 독립된 실체이며 읽기를 통해 결과적으로 독자가 무엇을 얻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읽는 과정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 관점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어떤 글에 포함된 낱말이나 구절에 관한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다 하더라도 배경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독자는 그 글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 둘째, 글의 의미 파악이란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독해는 독자가 글을 읽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작용이며 여러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체로써 하나의 의미를 구성하기도 하고 상위 기능이 하위 기능보다 먼저 파악될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독자가 그 글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글을 읽는 과정이다. 학생들이 글을 읽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의미를 획득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글을 읽는 방법을 터득해야 주어진 글을 더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어 글의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인지심리학의 영향으로 등장한 최근의 읽기관에 따르면 읽기는 독자가 주어진 글에서 의미를 구성해 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독자는 문자로 표시된 기호를 통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주어진 글로부터 의미를 추론하고 능동적으로 재구성해 나가는 이해과정이라는 것이다. 즉 독자가 주어진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는 우선 독자의 배경지식과 경험이 중요하고 독자는 이 배경지식과 경험에 입각하여 주어진 글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하향식 모형(top-down model²²⁾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이 모형에서 글의 의미는 글 그 자체보다는 글에 대한 독자의 적극적인 가정이나 추측에서 파악된다고 본다. 이 때 의미의 원천은 글이 아닌 독자의 지적 배경이 된다. 독해에서 글 내용과 관련되는 독자의 배경 지식의 영향을 중시하며 글 내용에 대한 독자의 배경 지식이 많을수록 글을 쉽게 이해한다고 본다. 따라서, 글을 읽을 때 독자로 하여금 글의 의미를 가정하거나 추측하는 사고활동을 강조하게 되고, 글과 관련된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가르치게 된다.

22) 상세서, pp.21-25.

그러나 독자의 배경지식과 경험이 충분해도 글에 포함된 낱말이나 구절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주어진 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읽기는 어느 한 가지 관점으로만 규정지을 수 없다. 읽기는 글과 독자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다. 이 주장은 상호작용 모형(interactive model)²³⁾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읽기 과정이 상향식이나 하향식 모형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읽기 과정에서 글의 요인과 독자 요인 둘 다 설명하려는 모형이다. 읽기는 글과 독자가 만나는 행위로서 읽기의 정신적 과정에는 자극체로서의 글의 영향과 해석자로서의 독자의 영향이 함께 작용한다.²⁴⁾ 실제로 독자는 글을 읽을 때, 글에 들어있는 새로운 지식(정보)과 독자 자신의 배경 지식을 관련시키면서 그 글의 의미를 파악한다. 이 두 과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독자는 글을 읽어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 과정을 반복하며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읽기에 대한 정의의 틀 터커와 맥컬로우(Tinker & McCullough)는 읽기는 독자가 이미 지니고 있는 개념의 조작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⁵⁾ 데보어(Deboer)는 문자언어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는 활동은 회상을 하고, 추리를 하며, 혹은 상상을 하고, 구조화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고등정신의 활동임에 유의해야 함을 말한다.²⁶⁾

박봉배는 문장을 의미 구조체로 보고 문장의 독해는 독자가 저자와 같이 사고하고 저자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 독자가 자력으로 저자의 주제를 자기의 주제로 재구조하여 읽는 행위로 독자와 저자간의 인간적 접촉²⁷⁾이라고 했다.

박수자는 읽기란 단순한 음독이 아니라 독해며, 독해란 글을 읽고 그 글의 내용을 아는 것이라 했다. 결국 독해란 필자가 의도한 글의 정보를 알아내고, 그 다음

23) 상계서, pp.26-29.

24) 노명완(1990), "읽기의 개념과 읽기 지도의 문제점" 「교육한글」, 제3호, 한글학회, p.27.

25) 박수자(1993), "읽기 전략 지도 교재 구성에 관한 연구," 博士學位論文, 서울대학교 대학원, p.26에서 재인용.

26) J.J Deboer Others(1966), Teaching of Reading,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정동화 외「국어과 교육론」, 선일문화사, p.266에서 재인용.

27) 박봉배(1976), 「국어과 교육론」, 일조각, p.257.

필자가 암시하고 있는 정보를 포착해야 하며, 나아가 독자 자신의 사고와 글과의 개인적 접촉으로 생긴 독자 개인만의 독해 결과(인상, 느낌, 적용, 평가 등) 등으로 정도화할 수 있다. 국어 교육에서 읽기 지도를 한다고 할 때 이 세 가지 독해 정도는 꼭 언급되어야 한다고 했다²⁸⁾

최영희는 읽기는 의미를 구성하는 이해 과정으로 정의해야 하며, 독자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글 속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이해해야 하며, 이 때의 이해하기는 문자의 해독 과정을 포함해서 이루어지는 사고 과정을 의미한다고 보았다.²⁹⁾

노명완은 읽기에서 의미의 재구성은 글을 쓴 필자의 생각과, 글을 읽는 독자의 사전 지식이 글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독자의 읽기 기능으로 여과되는 상호작용 과정³⁰⁾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읽기는 단순히 기호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다.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배경지식과 경험은 글의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독자는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배경지식과 경험에 입각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내면화하게 된다. 따라서 읽기는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배경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주어진 글(text)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추론하고 재구성해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읽기에 대한 지난 10여 년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읽기의 성격을 일반적 수준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¹⁾

- 읽기는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 읽기는 유창하여야 한다
- 읽기는 진략적이어야 한다.
- 읽기는 재미있어야 한다.
- 읽기는 지속적으로 계발되어야 한다.

읽기 지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어떤 종류의 글이든 주어진 글의 의미

28) 박수자(1994), 「독해와 읽기 지도」, 국학 자료원, pp.15-16.

29) 최영희(1993), 전제서, p.11.

30) 노명완(1988), 「국어 교육론」, 한샘, p.3

31) 노명완 외(1996), 「국어과 교육론」, 감을출판사, pp.201-207에서 재인용.

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고를 유도, 촉진하고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사고 기능을 기를 수 있게 하는 독해 측면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글의 의미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어떠한 기능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입각하여 읽기 기능의 요소에 대해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공통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읽기 기능의 요소에 대해 박봉배는 독해 능력으로 크게 지적 능력, 기능 능력, 태도 능력으로 나눈다. 기능 능력의 독해 기능으로는 기초적 기능과 기본적 기능으로 나누어 읽기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³²⁾ 기초적 기능은 문자를 읽는 능력, 단어를 이해하는 능력 등을 제시하고, 기본적 기능 가운데 논리적, 설명적 문자의 독해 기능에는 대의를 개괄하는 기능, 요약하는 기능 등을 제시하고 문학적 문자의 독해 기능으로는 주제를 파악하는 기능, 줄거리를 파악하는 기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바렛트(Barreet)는 몇몇 학자들의 교육목표 분류를 종합하고 읽기에서 이해 측면을 강조하여 기능을 선정 분류하고 있다.³³⁾ 그는 크게 축역적 재인파 회상, 추론, 평가, 감상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이들 각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읽기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식의 구분은 읽기 자료의 난이도보다는 기능 자체의 난이도에 초점을 두어 사고의 위계에 따라 기능을 위계화한 것이므로 인위적인 면이 강하다. 여기서는 읽기 기능이 엄격히 위계화된다고보다는 교육적인 필요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해리스(Harris)와 사이페이(Sipay)는 읽기 기능 자체의 위계화보다는 자료의 난이도를 강조하면서 독해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³⁴⁾ 대표적인 독해 기능과 여기에 관련된 기능을 포함하여 독해 기능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독자가 주어진 글을 읽기 전에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읽는 데 필요한 것으로, 읽기 전에 구체적인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외에 달맨(Dallmann), (슈브)Shub, 올슨(Olson), 보스턴 학교위원회(boston school committee) 등도 읽기 기능에 대해 주장한 바가 다르지만, 이들의 견해를

32) 박봉배(1998), 「국어교육학론」, 한샘, p.79.

33) 심혜옥(1994), 전제서, p.11에서 재인용.

34) 상계서, p.12에서 재인용.

분석, 종합하여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능을 추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읽기 기능의 요소³⁵⁾

- 단어의 의미 파악(단어의 축어적, 함축적 의미 파악)
- 세부 내용 회상
- 요약하기
- 순서 파악
- 관계 파악(인과 관계, 문장(단)과 문장(단)간의 관계 파악,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 파악,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 파악)
- 비교 대조하기
- 주제(중심 생각)파악 (명시적 주제 및 함축적 주제 파악)
- 예측하기(결과 예측, 생략 내용 추정, 이어질 내용 추론)
- 결론 도출(일반화)
- 사실과 의견, 허구, 가정 구별 및, 현실과 환상 구별
- 필자의 의도나 목적, 관점, 편견, 편향 파악 및 이의 평가
- 필자의 표현 기법이나 특징 감지 및 이의 평가
- 내용(자료, 정보)의 정확성이나 타당성, 적합성 판단

‘단어의 의미 파악’ 기능은 읽기를 정확히 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결국 어떤 경우이든 단어의 의미 파악은 읽기에서 중요한 기능임을 시사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단어의 의미 파악 기능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어를 정확히 읽어 내는 능력이 포함된다. 또한 단어의 축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단어의 함축적, 상황(문맥)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순서 파악’ 기능은 사건이나 아이디어들이 일어난 순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기능은 주어진 글의 관계 파악과 주제 파악의 바탕이 되는 기능이다.

‘관계 파악’ 기능은 주어진 글에서 사건이나 아이디어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기능을 말한다. 여기에는 인과 관계 파악, 문단과 문단간의 관계 파악, 전체와 부분과

35) 이재승(1992), “듣기 기능과 읽기 기능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p.23.

의 관계 파악 등이 포함된다.

‘예측하기’ 기능은 결과를 예측하거나 이어질 내용을 추측하는 것이 포함된다. 즉 주어진 글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그 글의 내용에 비추어 추론하는 것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읽기 기능의 요소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지만 읽기 기능들은 어떤 특정 종류의 위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읽기 기능은 엄격히 구분하여 위계화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 하면 읽기의 각 요소들은 서로 상호작용이나 상호 침투하는 일이고 또 글의 내용에 따라 사고를 요하는 정도는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읽기는 글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구성해 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학생에게 읽기 과제를 부과하거나 글 내용을 해석해 주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생에게 중요한 것은 읽기 과정을 학습하는 일, 즉 글을 읽는 방법을 터득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읽기는 학생이 글을 읽어 나가면서 글에 알맞은 전략을 선택하고, 글의 이해 정도에 따라 적절히 전략을 조절해 나가며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와 같이 효율적인 읽기를 위해서 읽기 단계에 따른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읽기 능력을 효과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전략으로는 읽기 과정에 따른 활동으로 독해 전 사고 활동, 독해 과정에서의 사고 활동, 독해 후 사고 활동으로 나누게 된다. 이들 각 단계에 따른 주요 전략³⁶⁾은 다음과 같다.

- (1)독해 전 사고 활동
 - 정보의 예견
 - 기존지식(배경 지식)의 활성화
 - 독서의 목적 결정 및 관심 영역의 구체화
- (2)독해 과정에서의 사고활동
 - 예견한 내용의 확인(수용 혹은 거부)
 - 아이디어의 명료화
 - 글의 각 단계별 의미의 구성
- (3)독해 후 사고 활동

36) 박영목 외(1995),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탐구」, 교학사, pp.12-13.

- 글 전체의 정보에 대한 의미의 구성
- 독서 목적에 대한 성취 정도 평가
- 독서 결과의 정착 및 적용

이 과정에 따른 주요 활동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현 교육과정
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과 함께 수행해야 할 목표를 단계별로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1970년 로빈슨(Robinson)에 의해 구안된 SQ3R은 훑어보기(survey), 질문 만들
기(question), 읽기(read), 암송하기(recite), 재검토하기(review)³⁷⁾의 5단계로 지금
도 읽기 학습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 한편 최현섭 등은 읽기 과정에 따라 읽기 전
독자의 사고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으로 연상하기, 예측하기, 미리보기를 들었다. 읽
는 중의 전략으로 훑어보기, 중심 생각 찾기, 글 구조 파악하기, 추론하기, 건너뛰
며 읽기를 제시하였다. 읽은 후의 전략으로는 요약하기, 비판적으로 읽기, 창조적
으로 읽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³⁸⁾

2. 창의적 사고



創意性(creativity)은 논자에 따라 인식의 관점이 다르고 이론 및 연구결과가 다
양하여 개념 정의에 어떤 합의된 바가 없다. 창의성은 논자에 따라 창의력, 창의
성, 창조성, 창의적 사고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한편으론 창의성과 창의력으로 구
분하여 창의력은 지적인 면에서 창의성은 정의적인 면에서 규정하려는 경향도 있다.

이 연구에서 논의하려는 바가 창의성의 용어 정의나 개념 정립에 있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이들 용어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창의적 사고로 통일하여 사용하
고자 한다. 다만 창의적 사고의 개념을 규명하기 위한 여러 주장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창의적 사고를 지적 능력으로 보려는 관점이다. 이것은 창의력을 지적 능

37) 상계서, pp.159~160.

38) 최현섭 외(1996), 「국어 교육학 개론」, 삼지원, pp.281-287.

력의 한 특성으로 간주함으로써 창의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관점이다. 길포드(Guilford) 등은 창의적 사고의 구조를 밝히는 연구에서, 창의적 사고의 지적 요소³⁹⁾로 ① 문제를 풀 줄 아는 능력, ② 주어진 시간 안에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능력, ③ 보다 융통적인 사고 능력, ④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 ⑤ 창의적인 사고 능력, ⑥ 주어진 의미를 재정의 하는 능력, ⑦ 조잡한 것을 정교하게 만드는 능력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적 특성은 종래의 지능과는 그 요인이 다른 특히 擴散的 思考(divergent thinking)라고 하였다. 확산적 사고력은 창조력과 같은 의미로써 엄격한 제한 내에서 정해진 답을 집중적으로 찾는 수렴적 사고와는 반대개념이다. 사고의 제한 없이 또는 개인의 과거 경험을 반영하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예상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고 유형을 말한다.

둘째, 창의적 사고를 정의적 특성으로 보려는 관점이다. 창의적 사고를 지적 능력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욕구, 성격의 일부 혹은 태도와 같은 정의적 특성으로 설명하려는 입장이다. 심리학자, 정신 분석학자, 창의적인 인간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주류를 이루는 관점이다.

프롬(Fromm)은 태도로써의 창의적 사고를 중요시하며 호기심, 일에 대한 집중력과 자기에 대한 感知, 모험심을 창의적 사고의 중요 요인으로 들고 있다. 매슬로우(Maslow)는 창의적 사고를 일차적 창의성과 이차적 창의성으로 나누었다. 일차적 창의성은 재능, 이차적 창의성은 자아실현적인 창의성으로 창의적 사고는 충분히 통합된 성격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⁴⁰⁾

프로이트(Freud)는 창의적 사고와 행동은 갈등, 또는 억압된 정서의 누적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생적 공상이나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것으로 보았다. 큐비(Kubie)는 창의적 사고를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에 존재하는 前意識의 기능에서만 가능한 상상의 자유로운 흐름에 존재한다고 하였다.⁴¹⁾

토렌스(Torrance)는 창의적 사고의 성격적 요인으로 변화에 대한 개방성, 사고와 판단에서의 독창성,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몰두와 전념, 민감성, 사물을 당

39) 김창목(1987), 『종합교육학신장(상)』, 일문각.

40) 이인순(1987), “창의성의 구성요인과 훈련효과,” 博士學位論文,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pp.13-15에서 재인용.

41) 상계서(1987), pp.13-15에서 재인용.

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음, 낙관적인 태도, 모험심 등을 들었다. 또 타일러 (Taylor)는 자발성, 자신감, 독자성, 모험심, 인내력, 정서적인 민감성을, 맥킨넨 (Mackinnon)은 독자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직관적이며 심미적인 민감성, 활동적이고 지속적인 근면성, 자발성을 창의적인 사람의 성격 특성으로 들고 있다.⁴²⁾

셋째, 창의적 사고를 문제 해결력으로 보려는 관점이다. 이 입장에는 월러스 (Wallas)의 창의적 산출 단계설, 로스만(Rossman)의 발명적 사고 단계설, 듀이 (Dewey)의 문제 해결의 단계설, 듀이(Dewey)의 단계설에 기초한 오스본(Osborn)의 창의적 문제 해결의 단계설 그리고 월러스(Wallas)의 모형에 기초한 오스본 (Osborn)의 창의력 수준에 관한 모형 등이 있다.⁴³⁾

월러스(Wallas)는 『사고의 기술』이라는 저서에서 사고의 4단계설을 내세웠다. 1단계는 준비기이다. 창의적인 산출은 나타난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지각하고 이해해 보는 단계이다. 2단계는 부화기이다. 지각 또는 이해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필요 의욕을 일단 가졌지만, 그러한 느낌이나 필요를 의식화하기 전 단계를 말한다. 3단계는 조명기이다. 무엇인지 몰랐지만 지금까지 찾던 행운의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르는 단계이다. 4단계는 검증기이다. 조명기에서 암시된 해결안으로써의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완전한 아이디어로 정리하게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문제해결 과정론적 입장은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 창의적 해결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방법론적인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라 하겠다.

넷째, 창의적 사고를 종합 행위로 보려는 관점이다. 윌리엄스(Williams)는 창의력 증진을 위한 교수 프로그램에서 창의력의 개념을 인지적 능력(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과 정의적 특성(용기, 호기심, 자발성, 직관적인 태도와 민감성)을 연합하였다. 험프리(K. H. Humphrey)도 창의력 교육에 있어서 인지적·정의적 학습은 분리될 수 없고 둘은 학습자 내부에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주장함으로써 인지적인 특성과 정의적인 특성 모두를 강조하였다.⁴⁴⁾

42) 안범희(1977), “창의성의 성격적 요인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연세대학교 대학원, p.30에서 재인용.

43) 윤종건(1990), 「창의력」, 정민사, p.21.

44) 안연숙(1991), “초등학교 아동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碩士學位論

우리 나라의 표준화된 간편 창의성 검사⁴⁵⁾에서도 지적 능력으로써의 특성과 성격적 요인으로써의 특성을 종합하여 창의적 사고로 간주하고 있다. 신세호도 “창의력 또는 창의성이란 어떤 것을 자기 나름대로 새롭게 시도하고 그 결과 흔히 보는 것이 아닌 좀 진기한 것이 있는 것을 내놓는데 동원된 지적인 과정이며, 동시에 그것은 그 개인의 성격적 특성”⁴⁶⁾이라고 보았다. 또 윤종건은 “창의력이란 기존하는 요소들로부터 직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새롭고 유용한 결합을 이루어내는 능력”⁴⁷⁾이라고 정의하였다.

오스본(Osborn)은 사고하는 주체인 개인의 행동에 따라 두 가지 양태로 사고를 분석⁴⁸⁾하였다. 이미 알려진 것, 또는 결정된 것을 흡수하고 기억하고 파지하고, 그것을 자료로 하는 추리 작용에 동원되는 사고를 제1차적 사고라 했다. 이미 알려진 것을 새롭게 지각하며, 개조한다든가, 알려지지 않은 것, 전에 없었던 것,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연구해 보고 상상해 보고 만들어 보는데 동원되는 사고를 제2차적 사고라 하였다. 전자는 확실성, 지식의 획득(acquisition) 및 동화(conformity)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후자는 모험, 지식의 발명 및 창의라는 대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창의적 사고란 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생산해 내는 과정이다.

또한 송재학⁴⁹⁾은 창의적 사고는 直觀的 사고(intuitive thinking)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직관은 문제 해결 방식을 시도하는 사이에 갑자기 적절한 생각이 떠오르거나, 해결의 단서들 얻게 되는 것, 또는 어떤 洞察이 갑자기 일어난 것과 같은 사고 활동을 뜻한다. 이러한 직관적 사고는 일정한 체계를 따르지 않으며, 여러 사고 단계를 뛰어 넘기도 하고 지름길도 찾아가기도 하며, 飛躍하는 등 문제 해결의 기능 전환을 가져오기도 한다.

文,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7에서 재인용.

45) 이영덕·정원식(1971), 「창의성 검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46) 신세호(1965), “창의적 사고에 미치는 인성요인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서울대학교대학원.

47) 상계시, p.10.

48) 신세호 역(1984),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 교육과학사.

49) 송재학(1984), “창의력 개발을 위한 학습모형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전북대학교 대학원.

한편 퍼킨스(Perkins)⁵⁰)는 창의적 사고는 창의적인 산출물을 낳는 사고방식으로 창의력의 궁극적인 증거는 산출물에 있다고 하였다. 신세호는 창의적 사고는 창의력을 나타나게 해주는 가변적인 것으로서 창의성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창의성은 예술이나 과학에서의 독창적인 산출물을 내는 재능의 결과적 측면이지만, 창의적 사고는 각각의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숙달할 수 있는 과정적 기술로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의적 사고는 제2차적 사고, 발산적 사고 직관적 사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반응에 얽매이지 않고 무엇인가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산출해 내는데 사용되는 지직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의적 사고는 어떤 사고의 결과가 나타난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니며, 특출한 특정인에게만 나타나는 능력도 아니다. 그러므로 창의적이게 해주는 창의적 사고는 누구나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은 학교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창의적인 사고력과 관련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논자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으나 인지적 능력의 하위 요인 중 공통 요인으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을 들 수 있다.

첫째, 유창성은 특정한 문제 상황에서 가능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는 양적인 사고 능력이다. 주어진 자극에 대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양의 변화를 보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로서 반응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 반응의 양에 관한 요인이다. 창의적 사고의 궁극적인 목적이 보다 독창적이며 질적으로 우수한 사고를 산출하는 데 있다 하더라도, 사고 과정에서 우선은 사고의 한계를 실정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가능한 많이 산출하는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 초기의 아이디어가 최선의 아이디어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보다 질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융통성은 문제 사태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법의 다양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하는 요인이다. 주어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한 가지 방법에 집

50) 싱일세 외(1988), 전서서, p.74에서 재인용.

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접근에 의해 해결을 보는 것은 그만큼 융통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흔히 사회 일반의 지배적인 사고 방식이나 자신에 익숙한 관점에만 고착되어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론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경직되고 상투적인 방식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 사고에서의 진진을 이룰 수 없게 되어 편협하고 진부한 문제해결을 하게 된다. 고정적인 사고의 틀을 깨고 발상 자체를 전환시켜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생각하는 것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실생활 장민의 복합적 문제 상황에서 특히 요구되는 것으로 유창한 사고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의 관건이 된다

셋째, 독창성은 사고의 결과로 나타난 반응의 독창성을 의미한다. 기존 지식의 통합이나 재구성이 아니라 새로운 반응의 도출을 일컫는다. 독창적인 반응이란 새로운 반응의 도출을 말하는 것이다. 독창적인 반응은 독특하고 참신해야 함은 물론 총명(clever)하여야 하고 흔히 볼 수 없는(uncommon)것이어야 한다. 창의적 사고의 이상적인 목표는 사고의 독창성을 추구하는데 있다. 일상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미 내 놓았거나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면 인간의 정신 또는 물질 세계의 변화 및 발전에 별다른 기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불운 자신의 삶이 의미를 찾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질 것이다. 사고에서 독창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문제 해결의 상황에서 보다 더 의미 있게 하고 질적으로 고양시켜 주는 데 있다.

넷째, 정교성은 어떤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 보다 문제를 명확히 한다거나 세분화하여 전개시키는 능력과 관계된다. 기존의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디어의 결함을 보충하여 구체화한다거나 잘 알려진 이야기의 단순한 삽화나 그림 등을 가지고 이를 윤색 또는 상술하여 표현함으로써 길게 꾸며 이야기를 전개하거나 세분화하는 등의 활동이다. 은연중에 떠오르는 거친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소중히 여기고 이를 발전시켜 훌륭한 아이디어가 되도록 정교하게 다듬는 활동은 창의적 사고의 최종적인 산출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창의적 사고력은 단시간 내에 길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기 계획 하에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창의적 사고력은 길러진다. 이 사고력을 신장시키려면 앞에서 밝힌 창의적 사고력의 요소들을 직접 다루어야 한다.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적절한 기법은 <표 1>과 같다.

<표 1> 창의성 하위요인의 지도기법⁵¹⁾

창의성의 요인		학습경험 수준	자료활용 기법
유창성	특정한 문제 상황에서 가능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산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에 대한 관점을 의도적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기 · 어떤 대상(언어, 도형)이나 현상들로부터 가능한 많은 것을 연상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레인스토밍 · 생각 이어 나가기
융통성	고정적인 사고 방식이나 시각 자체를 변화시켜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에 대한 시점을 변화시켜 숨겨진 면을 파악하기 · 특정한 것을 생각하면서 완전히 다른 것을 함께 떠올리기 · 서로 관계가 없는 듯한 사물이나 현상들 간의 관련성 찾기 · 사물이나 현상의 속성별로 생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레인스토밍 · 형태 기법 · 아이디어 계통도 만들기 · PMI · 관계없는 것끼리 짝짓기
독창성	기존의 것에서 탈피하여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 산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생각하기 · 생각이나 사물의 가치를 부정하고 생각하기 · 기존의 생각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여 생각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레인스토밍 · 창의적 문제 해결 · 형태 기법 · 아이디어 계통도 만들기 · 비판적 사고성향 · 관계없는 것끼리 짝짓기
정교성	다듬어지지 않은 기존의 아이디어를 보다 치밀한 것으로 발전시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연 중에 떠오르는 거친 수준의 생각을 구체화하기 · 아이디어를 그것의 실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발전시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레인스토밍 · 창의적 문제 해결 · 형태 기법 · 아이디어 계통도 만들기 · 계획세우기

위의 창의적 사고력의 하위 요인을 신장시키기 위한 지도 전략들을 <표 2>와 같이 추출하였다.

51) 서울특별시 교육청(1995), 「창의성 교육 문을 열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p.25.

<표 2> 창의적 사고력 신장 전략

학습 전략	내 용	학습 단계
추론 하기	추론은 핵심적 사고 기능 중 생성 기능에 속하는 것이다. 제시되지 않은 정보로부터 필요한 의미를 추측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사전 지식이나 경험, 작가가 제시한 단서를 활용하여 글에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활동으로 읽기 지도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다.	사고
예견 하기	글 속에 나타나 있는 어떤 사실이나 표현을 근거로 해서 숨겨진 내용이나 그 이상의 사실, 정보, 표현 등을 추리해 내는 것을 말한다. 제목만을 보고 글의 중심내용 예견하기 활동은 창의적 읽기의 중요한 활동이다.	문제 이해
의견 다루기 (PMI)	어떤 생각이나 제안을 다루는 방법으로 PMI를 사용한다. 어떤 의견이 '좋다, 나쁘다'를 말할 때 PMI를 사용한다 PMI를 사용할 때는 우선 그 의견의 좋은 점(P)을 말한다. 다음에는 그 의견의 나쁜 점(M)을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그 의견의 재미있는 점(I)을 찾아본다.	사고 표현
관계 없는 것끼리 짝짓기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두 개 이상의 단어를 결합시켜 새롭고 기발한 생각을 얻어내는 활동이다. 결합이란 서로 다른 것들을 합쳐서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합시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실”하면 “바늘”을 습관적으로 떠올리는 습관적 결합에서 벗어나 전혀 관련이 없는 것끼리 의도적으로 강제결합을 시켜 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게 한다.	표현
브레인 스토밍	‘두뇌폭풍’이란 말뜻 그대로 특정한 주제에 대해 두뇌에서 폭풍이 휘날아치듯이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밖으로 내놓는 것이다. 이 방법에서 전제하고 있는 기본 가정은 사고에서의 양이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양적으로 축적된 아이디어를 목록별로 정리하고 발전시켜 바라는 바의 최종적인 산출물을 얻는다. 브레인스토밍의 구성인원은 조장 1명, 기록원 1명 참가자 4-6명 정도이다. 소요시간은 20분-30분 정도로 실시하였다. 4가지 원칙을 지키며 학생들 전체가 이 활동에 완전히 몰입하게 한다.	문제 사고 표현
마인드 맵	마인드 맵은 이미지와 핵심이 되는 단어, 색깔과 부호를 사용해서 왼쪽 뇌와 오른쪽 뇌 전체를 활발히 움직이게 하는 두뇌개발법이다. 한 주제에 대해 떠오르는 낱말 또는 감정을 하얀 백지 위에 자유롭게 적어보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학습 기법이다.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다.	문제 표현

<그림 1> 직접 교수법

설명하기	시범 보이기	질문에 답하기	활동하기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원리,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학습전략을 아동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주어진 학습 과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사고 과정을 구체적이고 간단한 예를 통해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거나 모형을 제시하여 아동들이 활동하는 방법을 익히는 단계이다.	설명한 내용이나 시범을 보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주어진 학습과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지식, 원리, 과정 등에 관해 세부 단계별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활동 단계이다.	주어진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이미 학습한 지식 및 원리를 사용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교사의 도움 없이 실제로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활동을 하는 단계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동기 유발 · 전략 소개 · 학습 목표 인식 · 파워포인트, 실물화상기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동기 유발 · 학습전략 시범 보이기 · 학습 전략의 유용성 소개 · 파워포인트, 실물화상기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산적 발문 · 파워포인트, 실물화상기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집단 활동 · 토론, 발표 · 의견 공유 기회 제공 · OHP 이용

연구자가 맡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위의 <표 2>와 같은 학습전략들을 그 원리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그림 1>에 제시된 직접 교수법을 활용하여 4주간에 걸쳐 지도하였다.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전략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추론하기

· 설명하기

글쓴이는 글을 쓰면서 읽는 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읽는 이는 글의 내용들에 관해 글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고과정을 추론하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론을 통해 작가가 암시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추론하기는 읽기 지도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으로 주로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 '이어질 내용 추론하기', '인물의 성격 추론하기' 등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추론할 때는 여러분들의 사전지식이나 경험, 작가가 제시한 단서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 시범 보이기

'명숙이는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을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지 않을까 걱정했다.'라는 문장을 칠판에 쓴다.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놀리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명숙이는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을 좋아하는 것이 친구들에게 놀림받는 것과 관련될까요?

보통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같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그 당분 때문에 몸무게가 늘어나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 글에서 명숙이의 몸무게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듯한 정보가 숨겨져 있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명숙이가 살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이런 내용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 질문하기

교사 : 그럼 이제부터는 2~3개의 수어진 문장을 읽고 어떤 상황인지 추론해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TP 자료로 제시한다.)

영희는 당번 활동을 하다가 컵을 떨어뜨렸다. 영희는 누군가 볼까 두려웠다. 라는 문장에서 영희는 왜 누군가 볼까 두려웠을까요?

학생1 : 컵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학생2 : 컵을 떨어뜨리기만 했다면 영희가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컵이 유리컵이라서 컵이 깨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사 : 그래요. 앞뒤 문장을 잘 읽고 추론을 잘 했어요. 그럼 다음 문장도 잘 읽고 추론해 보세요.

읽기 시간이 되었다. 어제 영희는 할머니 댁에 갔다 오느라고 무척 바빴다. 선생님이 숙제해 온 것을 피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영희는 떨렸다.

학생1 : 예. 영희가 할머니 댁에 갔다 오느라고 바빠서 읽기 숙제를 못한 것 같습니다.

교사 : 참 잘 했어요. 추론할 때는 앞뒤 문장의 흐름, 원인과 결과를 잘 생각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겠지요.

· 활동하기

이젠 여러분 스스로 이어질 부분의 내용을 추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전개 순서, 인과관계를 파악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추론하도록 합니다.

영수는 시계를 흘끗 본 후에, 책가방을 집어 들어 재빨리 나갔다.

2) 예견하기

· 설명하기

예견하기는 글을 읽으면서 지금 읽고 있는 글 다음에 올 낱말이나 다음에 일어나게 될 사건 같은 것들을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은이는 왜 이 글을 썼을까? 등 다음에 나올 내용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견하려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겪었던 일을 잘 생각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 시범 보이기

철판에 “토끼와 거북이”를 쓴다.

우리들은 낱말을 만드는 자음이나 모음을 다 보지 않고도 어떤 낱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위 낱말은 토끼와 거북이입니다. 낱자 ㅊ와 ㅂ이 빠져 있지만 나머지 글자에서 낱말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 질문하기

철판에 “배추흰나비의 한살이”라고 쓴다

교사 : 위 글의 제목은 “배추흰나비의 한살이”입니다. 제목만 보고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을 것인지 예견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은이라면 어떤 내용을 쓰겠습니까?

학생1 : 배추흰나비의 알에서 배추흰나비가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써 있을 것 같아요.

교사 :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학생1 : 자연 시간에 배추흰나비의 한살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학생2 : 맞아요. 배추흰나비의 알에서 애벌레, 번데기, 다시 배추흰나비가 되

기까지의 과정이 소개될 것 같아요.

교사 : 그래요, 여러분 모두 예전을 참 잘하고 있어요. 글을 읽고 다음 내용을 예견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경험 등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해요.

· 활동하기

교사 :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예견하기 활동을 해 보도록 하겠어요. 학습지를 잘 읽고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물음에 답하도록 하세요.

☆ 아하! 그렇구나! ☆

<창의적 사고력 신장 학습지> 제주○○초등학교 제3학년 민들레반 이름()

다음은 “연어의 일생”에 관한 글의 첫부분입니다. 잘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연어는 고향을 아는 신기한 물고기입니다.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되돌아옵니다.

1. 윗 글을 읽고 이 글에는 어떤 이야기가 써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나요?

2. 왜 그렇게 생각을 했나요?

3. 다음 예견 문장을 읽고 맞다고 생각하면 ○, 틀리다고 생각하면 × 표시를 하세요.

가. 연어는 가을에 깨끗한 강에서 새끼를 낳습니다. ()

나. 새끼연어는 1년쯤 강에서 살면 30센티미터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

다. 새끼연어는 큰 고기로 자랄 때까지 강에서 자랍니다. ()

4. 다음 “연어의 일생”을 빨리 읽으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 중에 틀린 것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연어의 일생

연어는 고향을 아는 신기한 물고기입니다.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되돌아옵니다.

연어는 가을에 깨끗한 강에 알을 낳습니다. 약 두 달이 지나면 그 알에서 새끼가 나옵니다. 새끼연어는 1년 쯤 강에서 살면 10 센티미터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그러면 먼 바다로 나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큰 고기로 자랍니다. 몇 년 뒤에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연어는 떼를 지어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되돌아옵니다.

연어는 그 곳에서 수많은 알을 낳은 뒤에 자갈로 알을 덮고 주변을 지킵니다.



5. “연어”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적어 보세요.

6. 이 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은이가 되어서 “연어의 일생” 끝부분을 완성해 보세요.

3) 다른 입장에서 보기

· 설명하기

파란색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면 온통 파란색으로 보이고, 분홍색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면 온통 분홍색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주위의 사물을 볼 때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고를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여러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안다는 것은 생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만약 나라면……”, “내가 이 글을 쓴 사람이라면……”, “내가 주인공이라면……”이라는 생각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져서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시범 보기기⁵²⁾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음에 제시한 사물들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봅시다.

늪은 고목나무는 어떻게 보일까?

- 내가 만일 시인이자라면 : 지친 노동자, 노인, 병들어 죽어 가는 사람 등으로 보일 것입니다.
- 내가 만일 새라면 : 보금자리, 부모님, 아파트, 휴식처 등으로 보일 것입니다.
- 내가 만일 건설업자라면 : 쓰레기, 공사의 장애물, 또는 목재 등으로 보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발견은 같은 사물이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좋은 것이 남에게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52) 강충렬 외(1997), 「창의력계발프로그램 ②」, 대한교과서, pp.108-109.

· 질분하기

교사 : 여러분이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옷을 사러 갔습니다. 적당한 바지를 골라 입어 보았습니다. 이 때 옷가게 아주머니는 여러분에게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옷가게 아주머니가 되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학생1 : 어머니, 너무 예쁘다. 잘 어울리네요.

학생2 : 색깔도 참 예뻐요. 디자인도 멋있어요.

학생3 : 다른 가게에선 이렇게 디자인 좋고 색깔 좋고 가격도 싼 바지는 없어요.

교사 : 옷가게 아주머니가 되어서 이야기를 참 잘 해 주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의 어머니가 되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학생1 : 색깔은 괜찮은데 바느질이 촘촘하게 되어 있질 않아요.

학생2 : 다른 곳보다 비싼 것 같은데.

학생3 :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는가?

학생4 : 물빨래를 해도 되는가?

교사 : 참 잘 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살펴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행동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고려해야 하겠지요.

· 활동하기

어떤 사물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시각이 훨씬 넓어져서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세요.

어떤 부유한 사람이 우리 동네에 고아원을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의 어떤 아주머니들은 강력히 반대했고, 또 다른 아주머니들은 상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고아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과, 반대하는 아주머니들의 생각, 그리고 상관하지 않는 아주머니들의 생각에 대해 말해 봅시다.

4) 의견 다루기(PMI)

· 설명하기⁵³⁾

어떤 의견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대신 PM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MI를 사용할 때는 우선 그 의견이 좋은 점(P)을 말합니다. 다음에는 그 의견의 나쁜점(M)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그 의견의 재미 있는 점(I)을 찾아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나 제안을 다루는 방법으로 PM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의견을 제안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견에 대해 생각할 PMI를 써보고 다른 친구에게도 권해보세요.

P = 어떤 의견의 좋은 점(그 의견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이유)

M = 어떤 의견의 나쁜 점(그 의견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I = 어떤 의견의 흥미로운 점

※PMI의 원리

- ① PMI가 없다면 처음에는 좋지 못한 의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좋은 의견을 빠뜨릴 수도 있으므로 PMI는 중요하다.
- ② PMI가 없다면 매우 좋은 의견처럼 보이는 것의 단점을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 ③ PMI는 어떤 의견의 좋은 점, 나쁜 점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점까지 보여준다.
- ④ PMI가 없다면 그 의견의 좋고 나쁜 점에서가 아닌 그 당시의 감정에 의해서 대부분 판단할 것이다.
- ⑤ PMI로 미리, 그 의견을 실시한 후 당신이 그 의견을 좋아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53) 원세연(1994), "de Bono의 CoRT 사고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학생의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碩士學位論文,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pp.35-37.

· 시범 보이기

이번 시간에는 “창문은 유리창 대신 플라스틱 창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주제로 PMI 활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의견의 좋은 점(P)은 쉽게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은 아무리 세게 던져도, 부딪혀도 잘 깨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또 깨졌을 때 별로 위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쁜 점(M)은 플라스틱은 잘 긁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리창 청소할 때 조심해야 되겠지요. 한 번 긁힌 자국은 쉽게 없어지지 않아 지저분하게 보일 것입니다. 또 플라스틱은 유리보다 더 비쌀 것입니다. 재미있는 점(I)은 플라스틱으로 창문을 만든다면 갖가지 색깔의 창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아름답겠지요. 라는 생각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질문하기

교사 : 선생님의 시범활동을 보니까 PMI기법을 대강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럼 “모든 버스의 좌석을 떼어내야 한다.”는 의견의 PMI를 선생님과 같이 하면서 PMI기법을 정확히 익히도록 하겠습니다.(PMI 의견을 칠판에 제시한다.)

학생들 : PMI를 생각한다.

교사 : 우선 이 의견의 좋은 점부터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모든 버스의 좌석을 떼어내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학생1 : 버스의 공간이 넓어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습니다.

학생2 : 통로가 넓어지게 되니까 버스를 타고 내리기도 더 쉬워지겠네요.

학생3 : 의자를 안 만들어도 되니까 버스를 만드는 비용이 적어지겠습니다.

교사 : 의자를 떼어내니 좋은 점이 참 많군요. 그럼 이번에는 나쁜 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찾아볼까요?

학생1 :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승객들이 넘어질 것입니다.

학생2 :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은 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학생3 : 장바구니를 들거나 아이를 데리고는 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학생4 :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사 : 버스의 의자를 떼어내면 겪게 될 나쁜 점도 아주 많군요. 그럼 이번에는 이 의견의 재미있는 점을 찾아보세요.

학생1 : 두 가지 종류의 버스를 만드는 것이 흥미 있습니다.(좌석이 있는 버스와 없는 버스)

학생2 : 같은 버스인데도 쓰임새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은 흥미 있습니다.

학생3 : 버스에서의 안락함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재미있습니다.

· 활동하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PMI 활동을 해 보도록 하겠어요. “어린이들만을 위한 특별한 채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PMI 활동을 통해 이 의견의 좋은 점(P), 나쁜 점(M), 재미있는 점(I)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5) 관계 없는 것끼리 짝짓기

· 설명하기⁵⁴⁾

관련이 없는 것끼리 짝짓기는 늘 이상의 아무 관련 없는 것들을 강제로 결합시켜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입니다. 결합이란, 다른 것들을 서로 합쳐서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합시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하면 “바늘”을 생각하고, “어머니”하면 “아버지”, “의자”하면 “책상”을 연상합니다. 이런 식의 연결을 습관적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습관처럼 해오던 방법에

54) 상계서, p.71.

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나 생각을 전혀 관련이 없는 것끼리 의도적으로 강제결합을 시켜 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담배”와 “비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비록 비누는 담배와 아무 관계가 없지만 담배에 대한 새롭고 기발한 생각을 얻기 위해 짝지은 것입니다.

일단 “비누”를 생각해 보면 ‘신선함’이 떠오릅니다. 또 ‘신선한 것’ 하면 ‘봄’이, 그리고 ‘봄’하면 ‘꽃’이 생각납니다. 그렇다면 필터에 꽃씨가 들어 있는 새로운 담배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담배를 땅에 버렸을 때 꽃이 피게 될 것이며 공원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 시범 보이기

여러분, ‘회전의자’가 어떤 의자인지 아세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의자,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의자를 말하지요. 처음부터 ‘회전의자’가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회전의자’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자’와 ‘바퀴’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창의적인 물건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케이트보드’, ‘롤러 스케이트’ 등 우리 주위에도 참 많답니다. 이렇게 관련이 없는 것끼리 짝지어보면 새롭고 기발한 발명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 질문하기

‘타이어’와 ‘도너츠’ 그림을 칠판에 게시한다.

교사 : ‘타이어’와 ‘도너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학생 : 용도도 다르고 크기, 색깔 등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교사 : 그렇지요. 전혀 관련이 없지요. '타이어'와 '도너츠'의 속성의 차이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학생1 : '타이어'와 '도너츠'는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학생2 : '타이어'와 '도너츠'는 표면결도 다르고, 맛도 다릅니다. 또 쓰임새도 다릅니다.

교사 : 모두 잘 찾았어요. 그림 표면결, 구성들을 변화시켜 타이어를 개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학생3 : 한 가지 찾았습니다. 스노우타이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타이어의 표면결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눈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스노우타이어를 만들 수 있어요.

교사 : 기발한 생각을 찾아냈어요. 이런 강제결합 방법에 의해서 보다 좋은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 활동하기

다음 보기 중 두 항목을 선택하여 강제로 연결 지어 봅시다.

<보기>

사과, 연필, 침대, 지우개, 책받침, 양말, 자동차 바퀴, 요구르트 병, 창문, 쓰레기통, 빗, 호주머니, 칫솔, 낚시바늘, 쇠사슬, 구두끈, 책, 별, 재떨이, 연기

예> 지우개 + 연필 = 지우개 달린 연필

①

②

③

④

⑤

6) 브레인스토밍⁵⁵⁾

· 설명하기

브레인스토밍이란, 브레인파 스토밍이라는 영어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브레인은 '두뇌'를 뜻하고, 스토밍이란 '폭풍'이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브레인스토밍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마치 두뇌에 폭풍을 일으키듯 평소엔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활동을 말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려면 다음의 네 가지 규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첫째, 남의 의견에 비판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아이디어가 엉뚱할수록 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셋째,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합니다.

넷째, 여러 사람들로부터 나온 많은 아이디어들을 연결해서 아이디어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 시범 보이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다음 문제를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해 봅시다.(문제를 TP자료로 제시한다.)

요즘 우리 반 아이들은 쉬는 시간만 되면 복도에서 마구 떠돌고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매우 시끄럽고 다치는 아이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되면 불쾌하고 짜증이 납니다. 먼저 이 문제에서 발견되는 사실들을 찾아봅시다. 이 문제에서는 ①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복도에서 떠돌고 뛰어다닌다. ② 쉬는 시간이 매우 시끄럽다. ③ 다치는 아이도 생긴다. ④ 쉬는 시간이 되면 불쾌하고 짜증이 난다. 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해 봅시다(문제를 TP자료로 제시한다.)

요즘 우리 반 아이들은 쉬는 시간만 되면 복도에서 마구 떠돌고 뛰어다닙니다. 쉬는 시간이 매우 시끄럽고 다치는 아이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되면 불쾌하고 짜증이 납니다. 먼저 이 문제에서 발견되는 사실들

55) 강충렬 외(1997), 전계시, pp.74-77.

을 찾아봅니다. 이 문제에서는 ①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복도에서 떠들고 뛰어 다닌다. ② 쉬는 시간이 매우 시끄럽다. ③ 다치는 아이도 생긴다. ④ 쉬는 시간이 되면 불쾌하고 짜증이 난다. 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문제의 진짜 문제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쉬는 시간이 되면 불쾌하고 짜증이 난다. 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쉬는 시간이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 봅니다. ① 실내화를 부겁게 만들어서 떨어 수 없게 만든다. ② 복도를 겨우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게 만든다. ③ 쉬는 시간을 없앤다. ④ 화장실을 교실 안에 두고 복도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⑤ 복도를 없앤다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입니다.

· 질문하기

교사 :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활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책상의 개선할 점”입니다. 주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5분 정도 주겠습니다. 새롭고 기발한 생각들을 떠올려봅시다.

학생들 : 골똘히 생각한다.

교사 : 생각한 것들을 발표해 보도록 합니다.

학생1 : 책상의 높낮이를 키에 맞춰 조절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학생2 : 책상의 옆부분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학생3 : 책상 서랍을 정리하기에 좋게 칸을 더 많이 걸 수 있게 만듭니다.

학생4 : 책상 서랍을 더 넓고 크게 만듭니다.

교사 : 다시 시간을 주겠습니다. 더 새로운 생각들을 더 내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움직이기 편하게 한다는가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아이디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교사는 약간의 힌트를 주며 자극한다.)

학생1 : 책상 밑에 이동이 편리하도록 바꿔볼 겁니다.

학생2 : 쉽게 돌아앉을 수 있는 회전책상을 만듭니다.

학생3 :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책상을 만들어 책을 쉽게 꺼내게 합니다.

학생4 : 책상 위에서도 칼질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학생1 : 칸막이로도 쓸 수 있게 만듭니다.

학생2 : 연필이 잘 굴러가지 않도록 만듭니다

교사 : 새로운 생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록자가 기록한 내용을 빠짐없이
낭독하도록 합니다.

기록자 : 기록한 아이디어를 낭독한다.

학생들 :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분류·정리하여 재결합한다.

교사 : 우수한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포상한다.

· 활동하기



이제는 선생님의 도움 없이도 여러분들 스스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
이디어를 모듈별로 만들어 보세요.

- ① 요즘 가장 가기 싫은 곳은 어디입니까?
- ②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 ③ 그 곳에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교사의 발문이다.
발문이란 구두 물음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식 활동이나 사고 활동에 자극을 가하
여 창의력이나 탐구력을 개발 신장시키기 위한 지도방법이다. 교수-학습 활동은
교사와 학생간의 언어적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상황에서

의 발문은 학생의 창의적 사고를 활성화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

김계순은 현장에서 유효한 질문의 개선책 및 능률적인 질문기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⁵⁶⁾

- 폐쇄적인 질문이 아닌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개방적인 질문을 한다.
- 학생의 틀린 답을 정정해서 말해주지 말고 힌트를 주어 스스로 답을 찾으도록 한다.
- 학생이 답을 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린다.
- 짧은 질문에 길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 “왜 그럴까?”,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통해 사고의 기회를 부여한다.
- 수업시 “이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등으로 유도하여 학생들이 결론을 자연스럽게 내리도록 한다.

김용국은 국어학습시간 중의 효과적인 발문기법을 학습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⁵⁷⁾

(1) 도입 단계에서의 발문

- 이 단원은 몇 개의 소단원으로 짜여져 있을까?
- 이 단원의 글의 종류는 어느 단원과 같을까?
- 다른 제목으로 바꾸어 보자
- 이 단원의 제목으로 보아 글 속의 내용이 어떠한지 짐작할까?
-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 이 단원 속의 그림으로 보아 글 속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 이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꾸며 볼까?
- 비어있는 그림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 책을 읽으며 여자어린이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 시를 읽고 난 후의 느낌을 말해볼까?

(2) 전개 단계에서의 발문

- 다시 생각해 볼까?
-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 내 생각은 이런데 철이 생각은 어떨까?
- 이 글은 어떤 마음을 갖고 읽으면 좋을까?

56) 김계순(1991), “교사의 질문활용실태와 개선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p.7.

57) 김용국(1990), “학습단계별 발문의 기본적 입장,” 『교육연구』, 교육개발원, pp.68-69.

- 주인공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찾아내 보자.
- 주인공의 생각이나 심정이 잘 나타난 문장을 찾아 큰 소리로 읽어볼까?
- 한번 너 들려줄 수는 없을까?
- 시금 당장 나에게도 일어나면 좋은 이야기는 어느 부분인가?
- 친구들이 한 말을 종합하여 말해 볼까?

(3) 정리 단계에서의 발문

- 이 글을 읽고 주인공이 처한 일을 한 내용을 순서를 정해 말해 볼까?
- 각부분을 어떻게 맺어야 한시 상상하여 볼까?
-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할까?
- 이야기 속의 주인공을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가?
- 등장 인물이 한 명 더 들어간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질까?
- 남자 주인공을 여자로 바꾼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질까?
- 만일 분제의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교사가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해 연구 개발하여야 할 발문은 확산적 발문이어야 한다. 확산적 발문은 교사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반응을 요구하는 발문으로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학생들의 무한한 사고력을 자극하므로써 창의적 사고를 신장시키는 발문이다. 따라서 발문은 학습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학습 경험과 생활경험이 결부되는 범위 안에서 정선되고 계획되어야 하며, 명쾌하고 쉬워야 한다. 또한 사고를 확산시켜 줄 수 있는 확산적 발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발문으로 인하여 사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고, 발문 음성의 직설과 속도, 발문 횟수 등의 적절한 유의 등 발문의 기술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3. 창의적 사고와 읽기 교육

모든 교육은 학생의 사고력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 수학과는 수리를 통하여 사고력을 기르고, 과학과는 과학적 탐구를 통하여, 사회과는 사회적 인식을 통하여 학생들의 사고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국어과 교육 또한 언어활동이라는 그 고유

의 내용과 방법으로 인간의 사고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⁵⁸⁾ 말하기와 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전개시키며 명료하게 하는 사고의 좋은 연습 기회가 된다. 또, 여러 가지 토의에서 말하기, 듣기를 통하여 생각하는 기회를 가진다. 그리고 읽기는 의미를 파악하고 읽은 내용을 분석, 종합, 비판하는 그 자체로서 고차적인 사고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국어과 교육의 주된 도구가 되는 언어는 사람의 머리 속에 있는 체계에 도움을 주고, 불확실한 개념을 명료화하며, 머리 속 체계를 재구성하기도 한다. 즉, 언어는 단순한 정보 교환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고 기능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서 언어 활동은 그 자체가 고차적인 사고 활동을 수반하게 된다.⁵⁹⁾ 따라서 언어사용 능력의 향상은 곧 사고력 향상의 충분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어과 교육은 학생들의 언어사용 기능 신장을 통한 사고력 증진에 그 궁극적 목적이 있다.

언어사용의 기능은 크게 기초 기능과 고등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기초 기능이 단순히 ‘글 깨치기 수준’이나 ‘머리에 떠오르는 자기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글자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수준’의 기능이라면 고등 기능은 글을 읽고 그 글의 내용이나 구조를 독자 나뉠대로 상황 요인을 고려하면서 구성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수준, 그리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조직하고 표출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6차 국어과 교육의 성격을 보면 국어과 교육의 핵심적 기능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국어사용 능력을 학생들에게 길러주는 데 있다고 보았다. 즉, 언어사용 기능 영역을 통하여 합리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력을 길러주는 사고 교육으로서의 국어 교육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기능을 넘어서서 학생들에게 사고(생각)를 언어로 표현하고, 또 언어를 통해서 사고(생각)를 이해하는 고등 정신 기능을 신장시켜 주는 것이다.”⁶⁰⁾라는 주장에서 국어과에서 기르고자 하는 언어기능이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기초 기능을 넘어서서 학생들이 주

58) 윤희원(1994), “국어과 교육의 본질과 방향”, 『사고력을 기르는 국어과 교육』, 충청남도 교육청, p.9.

59) 노명완(1992), 『언어, 사고, 그리고 교육』, 국어과 교육의 기본 성격과 사고력 교육, 서울조동국어연구회, p.12.

60) 노명완 외(1996), 전제서, pp.66-67.

어진 정보 자료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선별된 사고를 효율적으로 표현하며, 언어와 사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고등 정신 기능으로 보는 것이다. 국어과가 이러한 고등 정신 기능을 신장시켜 주는 도구 교과라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육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교과이다.

국어과 교육은 표현과 이해 기능인 언어사용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하는 사고 교육이다. 그런데 표현 기능과 이해 기능은 머릿속에 들어 있는 생각을 단순한 언어로 번역하거나, 말이나 글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머릿속으로 이동하는 단순 기능이 아니다. 고도로 복잡한 정보 처리 과정 및 문제 해결 과정을 요구하는 고등 사고 기능이다. 즉 이해 기능이란 여러 가지 자료로부터 의미를 생성해 내야 하는 고등 사고 기능이며, 표현 기능이란 말과 글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야 하는 사고 기능인 것으로 국어과 교육은 바로 사고 교육인 것이다. 따라서 국어과 읽기 교육에서는 사고의 과정임과 동시에 사고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이어야 한다.

읽기는 단순히 반복적으로 읽기만 하면 성과가 나타나는 단순한 기능의 축적이 아니다. 독자가 글 속에 내포된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 언어지식, 기능지식, 문화지식 등을 상호 관련지어 유기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역동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유능한 독자는 자발적으로 글읽기를 즐겨하고, 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찾으려는 의욕이 강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반 지식들을 활용하여, 의미 창조의 주체로서 효과적인 전략을 이용한다. 그들은 글 내용의 전체적인 이해를 위하여 글을 읽기 전과, 읽는 도중, 글을 읽은 후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검토하고, 수정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이해를 도모한다. 과정에서 글속에 담긴 내용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적으로 해석하고 적용, 분석하면서 사고력을 신장시킨다.

즉 읽기는 인간의 여러 정신 능력 중 고등 사고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독자에게 읽기 행위에 대한 목적, 읽기 과제의 성격, 읽는 방법으로서의 전략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이끌어주는 데 초점을 둔다. 즉 읽기 전에 학생의 선행 지식을 활성화하는 질문을 사용하고, 읽는 목적을 명시하며, 글 내용에 대해 예측하게 하고, 읽는 동안 예측 정도를 비교해 보고, 새로 얻은 정보를 처리해 보며, 모르는 단어나

어려운 문장은 문맥 단서나 구조 분석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사고력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는 마자노가 사고의 핵심 기능⁶¹⁾으로 제시한 초점을 맞추는 기능, 정보 수집 기능, 조직 기능, 분석 기능, 생성 기능, 통합 기능, 평가 기능과 바렛트가 분류한 읽기 기능⁶²⁾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표 3> 사고기능과 읽기 기능 요소

심리학·철학에서의 중핵적 사고 기능 요소		읽기와 읽기 기능 요소	
① 초점을 맞추는 기능 (focusing skills)	· 문제를 정의하기 · 목표를 설명하기	1. 축어적 재인(再認) 및 회상	1.1 세부 내용의 재인 또는 회상 1.2 중심 생각의 재인 또는 회상 1.3 줄거리의 재인 또는 회상 1.4 비교의 재인 또는 회상
② 정보수집 기능 (information-gathering skills)	· 관찰하기 · 의문 형성하기		1.5 원인과 결과 관계의 재인 또는 회상 1.6 인물의 특성에 대한 재인 또는 회상
③ 조직 기능 (organizing skills)	· 비교하기 · 분류하기	2 재조직(reorganization)	2.1 유목화 2.2 개요 2.3 요약 2.4 종합
④ 통합 기능 (integrating skills)	· 순서화하기 · 표현하기 · 요약하기 · 재구조화하기		

61) 전라북도교육연구원(1993), 「국어과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자료」, 전라북도교육연구원, pp.39-40

62) 노명완·손영애·이인제(1989), 「국어과 사고력 신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안 탐색 - 초등학교 국어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pp.64-65.

심리학·철학에서의 중핵적 사고 기능 요소		읽기와 읽기 기능 요소	
⑤분석 기능 (analyzing skills)	· 속성과 구성요 소 확인하기	3. 추론 (inference)	3.1 뒷받침이 되는 세부 내용 추론
⑥생성 기능 (generating skills)	· 관계와 양상 확인하기		3.2 중심 생각 추론
	· 주제 확인하기		3.3 줄거리 추론
	· 오류 확인하기		3.4 비교 추론
	· 추론하기		3.5 원인과 결과의 관계 추론
	· 예언하기		3.6 인물의 특성 추론
	· 정교화하기		3.7 결과 예측
			3.8 비유적 언어 해석
⑦평가 기능 (evaluating skills)	· 준거 설정하기	4. 감상 (appreciation)	4.1 주제나 구성에 대한 정의적 반응
	· 확충하기	5. 평가 (evaluation)	4.2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공감
			4.3 자기가 사용한 언어에 대한 반응
			4.4 감상
			5.1 현실과 환상의 판단
			5.2 사실과 의견의 판단
			5.3 정확성과 타당성의 판단
			5.4 적절성의 판단
			5.5 수용 가능성의 판단

이상의 사고 기능과 읽기 기능에서 심리학자나 철학자들이 정리한 사고 기능과 읽기 연구자들이 정리한 읽기 기능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축어적 재인 및 회상 능력과 재조직, 추론의 능력, 평가, 감상하는 읽기 기능은 마자노가 정리한 초점을 맞추는 기능, 정보 수집 기능, 조직 기능, 분석 기능, 생성 기능, 통합 기능, 평가 기능의 사고 기능과 비슷한 정신 활동을 요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국어과 교육의 읽기 영역이 사고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표처럼 사고나 읽기의 기능을 세부적인 하위 기능들로 나누는 것은 개념적으로 가능하나, 실제 교육현장에서 각각의 기능을 분석하고 세분화하여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고과정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다음에 정보를 수집

하여 조직·분석하고 생성·통합·평가하는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체로써 하나의 과정을 구성하기도 하고 상위기능이 하위기능보다 먼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읽기 지도에서도 제목만 보고도 글 전체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정보 사이의 관계 분석과 평가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의 사고나 읽기 과정은 많은 요인들이 함께 관련되어 일어나는 총체적이며 통합적인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능숙한 독자가 되어 주어진 학습문제를 보다 더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고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Ⅲ. 읽기 교수-학습 모형 구안

1. 읽기 수업 모형 고찰

읽기 교수-학습 모형은 읽기 수업을 하는데 하나의 나침반과 같은 것으로 읽기 수업의 핵심을 차지한다.⁶³⁾ 읽기 교육과 관련된 수업 모형은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개발되어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는 학습자의 사고력 신장에 초점을 둔 읽기 수업 모형을 몇 개 선정하여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읽기 수업 모형 구안에 필요한 지향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 광주교대 부속초등의 읽기 수업 모형

이 모형은 세5차 교육과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펴낸 『각 교과별 학습방법의 실제』⁶⁴⁾에 제시된 ‘읽기 학습 과정안’이다.

이 모형은 ‘공부할 문제’ 선정에서부터 해결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학습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 학습자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해결하는 고등 수준의 사고력

63) 천경록·이재승(1998), 전제시, p.32.

64) 광주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1991), 『학습방법의 실제』, 문현각, p.56.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2) 전주금평초교의 읽기 교수-학습과정안⁶⁵⁾

<전체적 접근> 적응 활동

- 학습동기 유발 - 학습분위기 조성, 전시학습 상기, 출발점 행동 유도하기
- 학습문제 설정 - 예습과제 확인, 문제의 초점화(읽기의 목적 제시), 문제의 확인 제시(언어기능 요소의 학습관점 주지)

- 학습방법의 구상 - 학습문제 해결 방법 구상

<부분적 접근> 사고활동 - 총괄적 읽기, 분석적 읽기

- 글의 대강의 내용 알기 - 전문 읽기를 통하여 대략의 내용 파악, 읽기 기능 요소별 안내, 요소별 확인 발표
- 글을 부분별로 나누기 - 글의 성격에 따라 내용 분석, 글 나누기(형식 및 의미 문단, 표현, 구성유형별, 전개 단계별)
- 중심내용 찾기 - 요소간의 관계 파악 후 나눈 글의 중심내용 찾기
- 중심말 찾기 - 중심말 찾아 말하기
- 사고 모형 구조화 - 주제 파악

<통합적 접근> 표현활동 - 자기평가 ->정리하기, 자기평가 및 상호평가, 차시예고

- 주제내용 이해하기 - 주제를 적절한 문장으로 요약
- 주제내용 말하기 - 사고모형에 의해 발표하기
 - 글의 내용 확산 - 글 내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하여 발표하기

이 모형은 국어과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생이 주체가 되어 국어과 궁극적인 목표인 언어사용 기능을 신장시키기 위해 얻어진 사고 방법의 훈련과정을 계획적으로 체계화하고 사고력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3) 교원대 교과교육 공동연구회의 읽기 수업 모형

1993년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에서는 “초등학교 국어교과 수업 모형 수업방법, 평가방법 및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여 읽기 수업

65) 전주금평초등학교(1990), “언어적 사고방법 훈련을 통한 언어 표현 이해 기능 신장”, p.78

모형을 구안하여 제시하였다.⁶⁶⁾

< 읽기 준비단계 >

- 동기유발 : 교과서 각 단원의 도입 면의 제목과 삽화보고 이야기
- 단원의 학습목표 확인
- 제재 글에 합당한 사전 지식을 준비하기 위한 학습과제
 - ① 제재 글의 윤곽 훑어보기
 - ② 제재 글과 관련된 각사의 경험 상기
 - ③ 제재 글의 내용(주제 주요 사건 등 예견)
- 제재 글의 내용을 정독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의 학습과제
 - ① 읽기의 장애 요소 제거 : 새로운 낱말, 어구의 뜻 파악
 - ② 제재 글의 정독을 위한 문제 만들기
- 주요 학습 과제의 해결을 위한 전략의 설명 - 예시

< 읽기 진행단계 >

- 학습과제 해결을 위한 전략의 시범→안내된 아동 활동→독자적 활동
- 효과적인 읽기에 기여할 학습과제
 - ① 세세 글의 구조 파악 : 문단나누기, 각 문단의 소주제 파악, 문단간의 관계 파악, 글 전체의 구조 파악
 - ② 주요 내용의 메모 (사전 분제에 대한 답을 찾아 쓰기)
 - ③ 예견 내용의 평가 : 예견 내용과 실제 내용과의 대조 확인, 예견 변경 및 그 이유나 단서 들기
 - ④ 글 내용의 명료화하기
 - ⑤ 개인적인 반응 메모 (비판적 의견, 느낌, 상상, 의문)

< 읽기 정리단계 >

- 주요 내용 상기하기
- 중심내용(주제, 필자 의도)
- 전체 내용 요약하기
- 개인적인 반응(전체 내용에 대한 판단, 감상, 의문) 표현하기
 - ① 주요 대목 낭독하기
 - ② 독후감 쓰기, 그림 그리기 또는 각색하여 연극 꾸미기
 - ③ 공동 논제를 잡아 토론하기

이 모형은 읽기 수업에서의 읽기 과정을 읽기 전, 읽는 도중, 읽은 후의 3분법에

66) 최현섭 외(1993), 「초등 학교 국어교과의 수업 모형·수업방법·평가방법 및 평가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양출판사, pp.23-24.

따라 나는 것이다. 편의상 읽기 준비단계, 읽기 진행단계, 읽기 정리단계로 명명하여 글레이저의 일반모형 가운데, ‘학습지도단계’에 한정하여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에 의한 보다 적절한 읽기 수업의 절차모형으로 상세화하는데 초점을 둔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 그 동안 국내외적으로 알려진 읽기 수업모형들을 고찰·장점을 첨가하여 이상적인 읽기 수업모형을 제시하였다.

4) 직접 읽기-사고 활동(directed reading-thinking activity) 모형

DRTA는 학습자 중심의 모형으로 교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이 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모형이다. 학생들 스스로 글을 읽는 목적을 설정하고, 글의 내용을 예견하고, 글을 읽어나가면서 예견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이해 과정을 점검하는 수업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형은 다섯 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된다.⁶⁷⁾

① 읽는 목적을 설정하거나 확인하기

독서-사고의 과정은 학생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에 대한 호기심과 의문으로 시작된다. 독자가 글 내용에 관하여 의문해 보는 것은 스키마 이론에 관련되는 것이다. 스키마 이론은 이 모형의 첫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② 읽는 목적이나 사료의 성격에 맞게 조절하며 읽도록 지도하기

학생들이 만든 질문에 답하고 예언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빨리 혹은 천천히 읽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줄거리 알기, 문단 나누기, 구체적인 사실 확인하기, 내용 요약하기, 주제 파악하기 등은 각각의 성격에 따라 읽는 속도가 조절되어야 한다.

③ 읽는 상황을 관찰하기

학생들이 글을 묵독하는 행동, 묵독하면서 질문의 답을 찾아내고 예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보면서 학생들이 사료의 성격이나 설정한 목적에 맞게 알맞은 방법으로 읽는지 관찰한다

④ 독해 지도하기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예언한 내용이나 설정된 목적이 맞는지에 대하여 근거를 말하게 한다.

⑤ 중요한 읽기 기능 지도하기

DRA서와 같이 직접 지도법을 이용하여 글 속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읽기 기능들을 시도하게 된다.

67) 심혜옥(1994), 신세서, p.52에서 재인용.

5) NIE 대학 독서 연구센터의 직접 읽기 - 사고 활동 모형⁶⁸⁾

- ① 읽기 전에 아동에게 글 내용을 개괄적으로 추측하게 해 보는 단계(어떤 내용에 대한 글인지, 그 이야기에서 무엇이 일어나겠는지, 그 기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등)
- ② 추측할 때 사전지식을 활용하게 하며 그것의 중요성을 인지시키는 단계
- ③ 글 내용에 대한 추론적 질문과 그에 대한 해답 및 단서를 찾게 하는 단계
 - 추론적 질문하기(행간을 읽어야 답을 알 수 있게)
 - 답을 정해두기
 - 글에서 추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단서를 찾도록 도와주기
 - 단서들이 답과 연결되는 점을 명시해주기
- ④ 안내된 연습에서 점차 아동 스스로 연습하도록 하는 단계

6) Nessel의 안내된 읽기-사고 활동 모형⁶⁹⁾

- ① 한 편의 이야기에서 몇몇 주요 전환점을 상정하기
- ② 읽다가 각 '전환점'마다 멈춰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추측하기
- ③ 각자 추측한 것에 대한 근거를 글 내용이나 경험에서 추출해 내기
- ④ 뒤를 읽으며 추측 내용을 평가하고 이를 바꿀지 여부와 그 이유를 대기

이 모형에서 강조하는 것은 글을 읽기 전에 예견하는 것과 글 내용에 대한 추론하기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예견이나 추론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아동의 스키마를 활성화시켜 스스로 사고하게 함으로써 아동의 주체가 되는 역동적 읽기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이 연구의 사고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추론하기 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7) 직접 교수법(direct instruction)

이 모형은 국어 과목과 독서 과목의 교육과정에 지도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는 것으로 읽기의 과정을 중요시 한 인지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독해 과정과 절차에 대한 해설을 바탕으로 교사의 시범이 뒤따른다. 학생들은 이에 따라 스스로 중요 개념을 구조화하고 질문을 만드는 등의 학습활동을 한 뒤에 교정 지도를

68) 최현섭 외(1995), 「국어교육학의 이론화 탐색」, 일지사, p. 172에서 재인용.

69) 상계서, p.172에서 재인용

받게 된다. 직접 교수법의 지도 과정은 다음과 같다.⁷⁰⁾

1단계 - 주의 집중하기

교사가 설명을 하든, 학생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든 그것들을 곧 학생들의 학습을 준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즉, 교사는 이 단계에서 반드시 학생들이 학습 준비의 태세를 갖추도록 지도하여야 하는 것이다.

2단계 - 학습 내용 개관하기

교사는 학생들이 그 시간에 학습할 내용과 활동이 무엇인지를 알려 준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어디에서 학습이 시작되고 학습이 끝날 것인지, 즉 학습 내용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또한 이를 명심하도록 해야 한다.

3단계 - 새로운 어휘, 용어 소개하기

교사는 새로이 등장하는 용어들을 미리 제시해 줄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학생들이 잘 모르는 전문 용어나 그 글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어휘를 미리 지도할 필요가 있다.

4단계 - 단계적으로 과정을 설명하기

여기에서 교사는, 요리 책에서 요리의 과정을 설명하듯 학습 내용을 한 단계 한 단계 구체적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다만 교사의 설명을 보고 듣는다. 이 때, 학생은 교사가 설명하는 '과정'이 그 학습을 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인식하도록 가정한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 단계에서 학습지도를 시작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5단계 - 과정을 실제로 보여주기

이 단계에서 교사는 학습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교사는 성숙한 학습자가 학습할 내용(이클테면 글의 짜임, 주제 찾기, 내용 요약하기 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즉 그 문제 해결 방법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시범을 통하여 보여 주어야 한다. 교사는 또한 학생들이 언제 어디에서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에 봉착하는지를 인식하도록 해야 하며, 또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색하게 함으로써 초인지적 전략을 갖도록 보여 주어야 한다

6단계 - 연습활동을 지도하기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 사태(예를 들면, 예문을 제시하고 주제 찾기, 내용 요약하기)를 주고, 교사가 시범해 보인 전략에 따라 학생들이 실제로 연습해 보게 하는 것이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이 잘 못하거나 비효율적으로 할 때 이를 수정하도록 자세히 지도해야 한다. 물론 교사는 주입식으로 설명하려 들지 말고 다만 힌트를 주거나 안내하여, 학생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70) 한철우 외(1995),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탐구」, 교학사, pp.158-159.

7단계 - 혼자 스스로 연습하도록 지도하기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후 학습한 책략들을 혼자서 자발적으로 연습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방법이나 기능은 한 번 해 보아서 숙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몇 번이고 연습해야 한다.

8단계 - 필요한 경우 다시 한 번 지도하기

학생들은 한 번 지도를 통하여 배운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수행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한 것의 완전한 수행을 위하여 문제 해결 과정을 다시 보여 줄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 모형은 학생들로 하여금 독해를 위한 책략을 교사의 시범을 통해 익히고, 직접 경험과 연습을 통해 그 책략을 내재화하게 함으로써 학습의 주체를 자연스럽게 교사에서 학생으로 전이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장점을 지닌 직접 교수법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제6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교수·학습의 원리로서 직접 교수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생들에게 그 원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직접 교수법을 활용하였다.

8) 최장렬의 '주체적이고 탐구적인' 읽기 수업 모형⁷¹⁾

<예비 이해단계 · 학습목표 알기(통독)>

- ① 선행학습 성취 확인 및 보충활동
- ② 단원 및 세제의 개관
- ③ 정확한 발음으로 바르게 읽기
- ④ 학습목표, 사료 알고 학습계획 세우기

<구성 예견 단계 · 낱의 대강 알기(통독)>

- ① 개관적 읽기를 통하여 주제 예견해 보기
- ② 형식내문 대강 살펴보기
- ③ 글의 대강 줄거리 알아보기
- ④ 새로운 낱말 및 구절의 뜻 알아보기

<내용 파악단계 : 글의 중심 알기(정독)>

- ① 의미대분 나누어 보기
- ② 내분별 요점 알아보기

71) 최현십 외(1996), 전계서, p 162에서 재인용.

③ 각 교재별 중점 내용 알아보기

④ 글 줄거리 간추려보기

⑤ 형성진단

<확인감상 단계 : 글의 주제 알기(미독)>

① 중심 되는 생각 - 주제 알아보기

② 글의 뜻을 생각하며 바르게 낭독하기

③ 해당 문종의 특성 알아보기

④ 글에 나타난 지은이의 생각 알아보기

<확산 및 결정화 단계 : 여러 가지로 생각하여 보고 마음가짐 다지기>

① 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여러 모로 생각해 보고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기

② 글의 사상, 가치에 대한 자기 의지를 굳히기

<활용 및 창작단계 : 더 공부하여 익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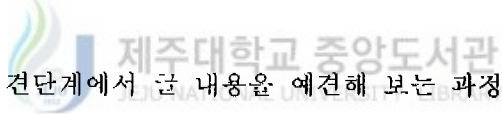
① 글의 내용과 관련된 것 실천해 보기

② 말익히기

③ 글씨 쓰기 및 글짓기

④ 평가 및 보충 심화

⑤ 후속 단원의 선행학습 프로그램 제시



이 모형은 구성예견단계에서 글 내용을 예견해 보는 과정을 통해 학습 의욕, 주제적 학습태도를 고취시키고 확인 감상 단계, 확산 및 결정화 단계, 활용 및 창작 단계에서는 글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실천해 보는 과정을 통해 확산적이고 발전적인 사고력을 신장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이 연구의 표현단계에서 생각 더하기 학습 활동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읽기 교수-학습 모형 구안

1) 교수-학습 모형 구안의 원리

위에서 논의된 읽기 수업 모형에서 시사 받은 점과 창의적 사고력에 관한 여러 이론들을 종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읽기 교수-학습 모형 구안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보고자 한다.

첫째, 창의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창의적 사고는 학습

자가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롭고 특이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탐색되는 도전적이고 자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장 잘 길러진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습자가 창출해 낸 아이디어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또 교사나 다른 어린이들로부터 두려움을 받지 않는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 자유롭게 토의하고 구상하고 발표할 수 있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활동에 중점을 둔다. 국어과 교육은 언어사용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므로 국어과 교육에서의 모든 교수-학습 활동은 학생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각 학습단계별로 이해하고, 사고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셋째, 명제적 지식보다는 과정적 지식을 강조한다. 읽기 과정과 사고 과정이 유사하므로 읽기 지도는 사고 과정과 연계해 의미를 획득하기까지의 과정이 중심이 되는 지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읽기 기능 그 자체에 대한 지도를 바탕으로 사고 과정으로서의 읽기 방법에 대한 지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사고의 방향, 전략의 활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스스로 모자라는 부분을 찾고 보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피이드백을 해야 한다.

넷째, 교사의 발문은 확산적 발문이어야 한다.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려면 폐쇄적이고 제한된 반응만을 요구하는 발문보다 자유롭고 폭넓은 사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발문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질문에 한 가지의 정답만을 인정하는 흑백 논리식의 수업은 지양해야 한다. 한 가지의 질문에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나올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여러 가지의 답은 학생들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한 수용되고 권장되어야 한다.

2) 읽기 교수-학습 모형의 구안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원리를 바탕으로 구안한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읽기 교수-학습 모형은 <표 4>, <표 5>와 같다.

<표 4> 문학 교재 읽기 교수-학습 모형

단계 (시간)	학습과정	학 습 활 동 내 용	주요전략
문 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동기 유 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명과 관련하여 제재 글의 종류와 내용 짐작하기 · 단원과 관련된 생활 경험 발표하기 · 단원에 제시된 삽화를 보고 전체의 내용 미리 생각하기 · 학습문제 알아보기 -문제의 초점화 -글을 읽는 목적(관점)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상하기 · 예견하기 · 마인드맵
이 해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문제 파악 · 학습문제 해결방법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문제 확인 · 학습문제 해결 방법 구상하기 -학습에 관련된 내용 살피기 -학습 방법 분석 및 자료 확인 -학습 순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론하기
사 고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문제 해결방법 안내 · 여러가지 방법으로 글읽기 · 글의대강 알기 · 글의짜임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문을 활용하여 학습문제 해결방법 안내 및 시범 보이기 · 추론하며 읽기 -다음에 이어질 내용 추론하며 글읽기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의 변화를 추론하며 글읽기 · 생각하며 글읽기 -정확한 발음으로 읽기 -글의 유형에 따라 대충 읽으며 대강의 내용이나 주요 사실을 파악 -글자, 부호, 어휘의 의미 파악하기 · 글의 대강 짐작하기 -주요 사실, 주요 인물, 주요 사건, 인물의 성격 등 · 글의 특성에 따라 나누기 -시간순서, 공간순서, 장면변화, 구성유형, 전개단계에 따라 나누기 -이야기의 줄거리 변화 알기 -발단, 전개, 절정, 절말 등의 전개 과정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론하기

단계	학습과정	학 습 활 동 내 용	주요전략
표 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의 중심 생각 알기 · 글의 줄거 리 간추리기 · 생 각 더하기 · 정 리 및 평 가 ·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의 원인과 결과 알기 · 인물의 행동이나 심정의 변화 알기 · 일의 상황이나 징경 알기 · 글쓴이와 시대적 배경 알기 · 글의 중심생각 알기 -중심말을 뽑아 글의 구조도를 완성한다. · 글의 줄거리 간추리기 -글의 구조도를 보면서 글의 줄거리를 간추려 발 표하기 · 글 내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하여 발표하기 -제재 글의 각 문단에 어울리도록 소주제, 제목 붙이기 -주요 내용에 관련된 나의 생각 발표하기 -제재 글에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더 알고 싶은 점 이야기하기 · 글의 중심생각, 가치에 대한 자기의 의지 굳히 기 -제재 글에 대한 느낌, 생각, 각오, 태도, 본받을 점, 식절한 비판 내용 등 발표하기 · 감상적으로 읽기 -학습내용 정리 및 요약하면서 읽기 -주요 대목 읽기 -아름답거나 감동적인 부분 읽기 · 발전적인 독서하기 -글의 구조도 그리기 -마인드 맵하기 · 형성평가 또는 자기평가, 상호평가 · 차시 예고 및 연습적 과제 알기 -해결방법 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기 · PMI하기 · 관계없는 것끼리 짜짓기 · 마인드 맵

<표 5> 비문학 교재 읽기 교수-학습 모형

단계 (시간)	학습과정	학 습 활 동 내 용	주요전략
문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명과 관련하여 제재 글의 종류와 내용 짐작하기 · 단원과 관련된 생활 경험 발표하기 · 단원에 제시된 삽화를 보고 전체의 내용 미리 생각하기 · 학습문제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상하기 · 예견하기
이해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문제 파악 · 학습문제 해결방법 모색 · 예견하기 · 학습문제 해결방법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의 초점화 -글을 읽는 목적(관점) 알기 -학습문제 확인 · 학습문제 해결 방법 구상하기 -학습에 관련된 내용 살피기 -학습 방법 분석 및 자료 확인 -학습 순서 파악 · 예견하기 	
사고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읽기 · 글의 짜임 알기 · 중심내용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을 읽기 전에 글의 주제, 내용, 낱말, 어휘, 글의 짜임 등을 예견하기 · 예시문을 활용하여 학습문제 해결방법 안내 및 시범 보이기 · 생각하며 글읽기 -정확한 발음으로 읽기 -글의 유형에 따라 대충 읽으며 대강의 내용이나 주요 사실을 파악 · 질문하며 읽기 -모르는 낱말이나 어구를 해석해 보기 -형식 문단 대충 살피기 -학습문제에 따른 주요 사실 파악 · 글을 세 부분으로 나누기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설명하는 내용에 따라 	

단 계	학습과정	학 습 활 동 내 용	주요전략
표 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의구조도 완성하기 · 글의 줄거리 간추리기 · 예견내용의 평가 · 중심생각 찾기 · 생각 더하기 · 비판적읽기 · 정리 및 평가 ·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을 단락별로 나누기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에 따라 -중심문장과 뒷받침해 주는 보조문장에 따라 · 중심문상 찾기 -요소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나눈 글의 중심 내용 찾기 · 중심말을 찾아 구조화하기 -중심말을 뽑아 글의 구조도를 완성한다. · 글의 줄거리 간추리기 -글의 구조도를 보면서 글의 줄거리를 간추려 발표하기 · 예견 내용의 평가 -예견 내용과 실제 내용과의 대조 확인 -예견 변경 및 그 이유나 단서 들기 · 글쓴이의 의도, 말하고자 하는 중심생각 알아보기 · 글 내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하여 발표하기 -제재군의 각 문단에 어울리도록 소주제, 제목 붙이기 -주요 내용에 관련된 나의 생각 발표하기 -제재글에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더 알고 싶은 점 이야기하기 -주장을 바꿔보기 · 글 낭독하기 -주장에 따른 이유나 근거를 생각하면서 읽기 -설명이 잘 되어있는 부분 읽기 -주요 대목 읽기 · 발선적인 독서하기 -글의 구조도 그리기 -마인드 맵하기 · 형성평가 또는 자기평가, 상호평가 · 차시예고 및 예습적 과제 알기 -해결방법 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 른 입장에서 생각하기 · PMI 하기 · 마인드 맵

읽기 수업 모형은 문제 → 이해 → 사고 → 표현의 4단계로 구안했다. 각 단계의 중심 활동을 제시하면 문제단계에서는 학습동기 유발과 공부할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 이해단계에서는 학습 문제 해결 전략을 선택하는 과정, 사고단계에서는 전략에 따른 자기 주도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단계, 표현단계에서는 글 내용과 관련하여 생각을 더하여 자기 주도적 발표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안된 모형에서 창의적 사고력 신장에 가장 중요시되는 단계는 표현단계이다.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된 사고를 자신의 언어로 구상하고 표현하고 발표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움'에 이르게 하는 단계이다.

3. 읽기 교수-학습 모형 적용의 실제

위와 같이 구안된 교수-학습 모형은 글의 유형과 특성에 맞게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문학교재와 비문학교재로 구분하여 14주에 걸쳐 연구자가 맡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시간에 적용하였다.

1) 주요 학습 활동

(1) 문제 단계

문제 단계는 학습동기 유발과 공부할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읽기 교과서는 단원 도입면에 단원 학습 목표와 도입 학습을 위한 간단한 글이나 삽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아동들의 배경 지식이나 유사 경험과 관련지어 단원 전체의 내용을 예견해 보는 활동으로 학습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게 된다.

단원명과 관련하여 제재의 종류와 내용을 짐작하는 활동, 단원과 관련된 생활 경험을 떠올리고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활동, 삽화를 살펴보고 이야기하기, 지금까지 글과 삽화를 통해 안내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 목표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확인한다.

문제 단계의 수업사례는 다음과 같다.

T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가 공부할 단원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보고 생각해

는 것들이 있나요?

C₁ 무척 감동적인 이야기일 것 같아요.

T 수지는 왜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나요?

C₁ 지난번에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를 읽었는데 친구를 위해 주는 하이디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T 수지가 발표를 참 잘 했어요. 또 다른 생각은 없나요?

C₂ 저는 소년소녀 가장들이 쓴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려움을 꼭 참고 밝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T 그래요. 여러분 생각들이 참 아름답군요. 그럼 교과서 53쪽을 보세요. 이 이야기의 제목을 말해 볼까요?

C_n “건우와 직녀”입니다.

T 이 이야기의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C₃ 건우와 직녀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둘은 무척 사랑하였습니다. 둘이 함께 지내다보니 일을 게을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황 상제께서 벌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을 평소에는 못 만나게 하고 칠월 칠석날만 만나게 하여서 칠석날만 까치가 만든 다리 위에서 만나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C₄ 맞아요. 우리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칠월 칠석날은 비가 온다고 했어요. 까치들 머리도 벗겨지고요.

T 이야기를 참 잘 해 주었어요. 건우와 직녀가 왜 칠월 칠석날만 만나게 되었을까요?

C₅ 열심히 일을 안 해서 하늘나라 임금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입니다.

T 그래요. 모든 이야기에는 “건우와 직녀”처럼 결말과 그렇게 된 원인이 있어요. 오늘부터 일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이야기의 결말을 알아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C_n (학습 문제 확인하기)

이와 같이 문세 단계에서는 문세와 관련된 경험을 상기시켜 본시에 학습할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시킨다. 도입 편의 삽화를 영상 매체 등으로 재구성·제

시하여 아동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켜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2) 이해 단계

‘이해’ 단계에서는 ‘학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학습할 순서를 정한다. 이때, 지적 능력·정의직 특성이 다른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사고 활동을 억제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기 나름대로 사고하고, 친구들의 생각과 비교해 보는 과정을 통해 학습 순서를 파악해 함으로써 사고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또 이 단계에서는 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익히는 단계이다. 학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각자 발표하고 토의한다.

협의를 위해 ‘학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순서가 정해지면 교사는 학생들이 협의한 학습방법에 맞게 학습과정을 안내해 준다. 이 때, 교사는 목표 기능 습득에 대한 방법이나 절차를 세분화 또는 단계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공부해야 할 방법이나 절차를 미리 알고 학습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고 시범을 보여준다.

‘이해’ 단계의 수업사례는 다음과 같다.



T 그럼 여러분들이 협의한 학습방법을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설명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학습활동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할 것인지를 알아내도록 하세요.

T (55쪽 삽화 제시하면서) 어떤 그림인가요?

C₁ 세 아들이 곡식을 한 아름씩 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T 농사가 잘 되었나봐요. 왜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게 되었을까요?

C₂ 세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T (결과가 되는 삽화 옆에 ‘결과’, 원인이 되는 삽화 옆에 ‘원인’의 카드를 붙이면서)

그래요. 세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밭에 곡식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밭에 곡식이 많이 열린 것은 ‘결과’이고 세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지은 것은 ‘원인’입니다.

이야기의 결말과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공부를 해야합니다.

- ① 글을 읽으며 이야기의 내용 파악하기
- ② 이야기에서 원인이 되는 내용과 결과가 되는 내용 알아보기
- ③ 이야기의 결말과 그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기
- ④ 농부가 밭에 묻어 두었다고 한 보물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T 글의 내용을 파악하며 묵독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낱말에는 □표시를 합니다.

우선 54쪽 “농부와 세 아들” 7줄까지만 빨리 읽도록 합니다.

C_n (아동들은 어려운 낱말에 □표시를 하면서 묵독한다.)

T 나이가 들어 몸져눕게 된 농부는 세 아들을 불러 놓고 무엇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예견을 해 봅시다.

C_n (아동들은 생각한다.)

T 누가 이야기해 보자.

C₃ 돌아가시기 전에 모두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주잖아요. 그래서 이 농부도 세 아들에게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주고 사이좋게 잘 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C₄ 농부가 아들들이 게을러서 늘 걱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도 걱정이 되어서 제발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고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평소에 말을 안 듣다가도 유언은 꼭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에 부모님께 들었어요.

T 모두 예견을 잘 해 주었어요. 예견한 내용과 비교하면서 17줄까지 읽어보세요. 앞으로 세 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은가요?

C₅ 밭을 남김없이 파헤쳤는데 보물이 안 나와서 무척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더 게을러질 것 같아요.

C₆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게으른 아들들은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그 밭을 팔아서 돈을 나눠 가질 것 같아요.

C₇ 보물을 찾지 못해서 실망이 컸지만 구석구석 일구어진 밭을 보고 농사를 지었을 것 같아요. 책상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앉아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세 아들도 꼭 그런 마음이 들 것만 같아요.

T 참 잘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럼 예견한 내용과 비교하면서 끝부분까지 읽도

록 하겠습니다.

‘이해단계’에서 학습문제 해결 방법이나 과정을 단순한 예나 보기를 통하여 자세히 안내해주는 과정을 통해 아동들은 목표 기능에 따라 읽기의 효과적인 방법이나 사고의 원리 및 과정을 터득해 스스로 읽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고단계

‘사고’ 단계에서는 ‘이해’ 단계에서 학습했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습 활동이 진행되는 단계로 학생 중심 활동이 되게 한다. 이 단원에서 학습해야 할 목표 기능을 위해 제시해 놓은 학습 내용을 전 단계에서 학습한 학습방법 및 과정에 따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개인, 소집단, 전체활동을 통해 주어진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인지된 지식 및 개념, 경험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실제로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활동을 한다. 읽기의 관점을 명확히 하여 제재 글을 읽는다. 단원의 특성이나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묵독, 속독, 낭독, 음독 등의 다양한 읽기 방법을 활용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글의 종류별 내용에 따라 걸으로 드러나지 않는 구조유형을 조직하고 내용을 더욱 의미 있게 정교화시키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전체 토론이나 소집단 토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생들은 서로의 의견이나 느낌, 생각을 주고받으며 비교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사고를 더 확산, 심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 때 소집단의 사회자는 모둠원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끌고루 주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개개인의 사고가 공동사고로 다듬어지고 모아질 수 있도록 학습의 안내 및 지원 보조자로서 학생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사고’ 단계의 수업절차는 다음과 같다.

T 그림 원인과 결과를 찾으면서 이야기를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봅시다.(읽기 관점을 명확히 제시한다.)

C_n (글을 읽으면서 원인을 찾아 밑줄을 긋는다.)

T 모둠별로 생각을 모아 준비된 문장 카드 제작지에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C_n (모둠별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문장 카드에 쓴다.)

T (보기글 제시하고)

이 부분의 원인과 결과를 꼬마달 모둠에서 해 보도록 합니다.

C₁ (꼬마달 모둠장이 나와서 ① 밭에다 보물을 잔뜩 묻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
니다. 문장카드와 ② 세 아들이 몹시 게을러서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장 카드를 붙인다.)

세 아들이 몹시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농부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
므로 ①문장은 결과이고 ②문장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T 참 잘 해주었어요.

(보기글 제시)

이 부분의 원인과 결과를 바람 모둠에서 해 보도록 합니다.

C₂ (바람 모둠장이 나와서 ① 세 아들이 밭을 열심히 파헤쳤습니다. ② 밭에다
보물을 묻어 두었다는 아버지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장 카드를 붙인다.)

세 아들은 밭에다 보물을 묻어 두었다는 아버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밭을
열심히 파헤쳤습니다. 그러므로 ①은 결과이고 ②는 원인입니다.

T 참 잘 해주었어요 (마지막 부분 제시) 마지막 부분은 이슬 모둠에서 해 주세요.

C₃ (이슬 모둠장이 나와서 ① 가을이 되어 세 아들의 밭에는 어느 해보다 곡식
이 많이 열렸습니다. ② 세 아들이 밭을 깊게 파 일구었다. 문장 카드를 붙인다.)

곡식이 많이 열린 것이 결과이고 세 아들이 밭을 열심히 파 일군 것이 원인입니다.

T 이야기를 읽어보면 원인과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오
고, 또 결과가 또 원인이 되어 또 다른 결과가 옵니다. 이 때 마지막 오는 결
과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C_n 결밭이라고 합니다.

T 그래요. 바로 결밭이라고 해요.

그럼 다시 한번 원인에 따른 결과를 생각하며 이야기를 묵독하고 공책에 다
음 표를 완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표를 제시한다.)

(원인) 세 아들이 몹시 게으름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

(결말)

C_n 공책에 표를 완성한다.

T 농부가 밭에 묻어 두었다고 한 보물은 결국 무엇입니까?

C₄ 부지런히 일하면 좋은 수확을 얻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사고’ 단계는 학습자 스스로 이미 학습한 학습 방법 및 과정에 따라 능동적으로 학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자신의 사고를 언어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도 이루어진다.

(4) 표현 단계

이 단계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정리·확인하고 심화·발전 과제를 해결하게 한다. 또 형성평가와 차시 안내 및 과제 제시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 단계의 중심 활동은 제재 글을 다시 읽으며 학습 방법 및 사고 과정에 의해 글 전체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단계로 활발한 사고활동이 이루어지게 한다. 또, 심화 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새로운 문제 사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도전하여 새로운 방법,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의 의견, 비판, 그리고 개인적인 감상이나 상상을 발표하게 하여 여러모로 생각해 보고 견주어 보게 한다.

좋은 표현이나 가치적인 면에서 중요한 대목을 다시 읽어보거나 관련된 다른 글도 읽도록 안내하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더 확산적인 사고나 발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아동의 표현 활동의 결과물들을 교실 게시판에 게시하여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고 형성 평가의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차시 안내와 함께 예습 과제는 해결 방법을 명확히 제시해 준다.

‘표현’ 단계의 수업 절차는 다음과 같다.

T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요?

C₁ 이야기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C₂ 원인은 먼저 있었던 일이고, 결과는 나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C₃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T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잘 말해 주었어요.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읽고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군요?

C₄ 저는 농부가 참 지혜롭다고 느꼈어요. 게으른 아들들을 부지런한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저는 죽으면서까지 아들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C₅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농부의 아들들이 게으라서 농사를 짓지 않았잖아요. 제가 만약 농부였다면 걱정만 하지 않고 아들들에게 장사하는 법을 가르치든가 하겠어요. 아들들의 적성에 맞는 일을 골라서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T 아하, 그렇구나. 태준이의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태준이의 말처럼 새롭게 꾸며볼까요? 농부는 이런 아들들이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부터 새롭게 꾸미면 되겠지요.

C₆ “애들아, 농사를 짓기가 싫으냐?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열심히 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좋다”

C₇ “예. 저는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C₈ “예 저는 고기를 잡고 싶습니다.”

C₉ “저는 도자기 굽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C₆ 그래서 농부는 세 아들의 소원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배우도록 해주었습니다. 세 아들은 신이 나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T 우리 태준이가 세 아들들의 적성을 살려 참 잘 꾸몄어요. 이 다음에 우리 태준이는 부모역할을 훌륭히 살 해낼 것 같아요.“

C_n 학생들 모두 웃는다

T 이렇게 모든 이야기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마지막 결과를 결말이라고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 다음 시간에는 '다섯 개의 완두콩'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원인과 결과를 찾아보는 공부를 하겠어요. 집에서 '다섯 개의 완두콩'에 있는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꾸미면서 글의 내용을 예견해 보도록 하세요. 글의 내용을 예견할 때에도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도록 합니다.

이것으로 이 시간 공부를 마치겠어요.

'표현' 단계에서는 학습의 중심수세를 이해하여 정리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의견, 생각을 확산시켜 발표해보는 활동을 통해 발전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한다. 또 발표한 내용이나 쓴 내용을 자기 평가, 상호 평가하여 잘된 것, 보완해야 할 점을 서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보는 계기도 된다.

2) 읽기 수업 모형 적용 사례

<표 6> 문학 교재

일시	1999. 10.	2교시	쪽 수	읽기 46 - 52쪽	시간	40분
단원	6. 원인과 결과 (4/7)		학습 주제	원인과 결과 파악하기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을 읽고 원인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 이야기의 결과를 상상하여 말할 수 있다. 			창의적 사고 요소	유연성 독창성	
단계 (시간)	학습과정	학 습 활 동 내 용				주요전략
문 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동기 유발 -생활 경험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이 "짧아진 바지"인데 어떤 경우에 바지가 짧아질까요? -주인공이 밤 사이에 키가 훌쩍 커 버렸나봐요. -세탁소에서 잘못 줄었나봐요 -아들 옷을 입었나봐요. · 여러분들은 이 그림과 같은 경험이 없었나요? -서는 여름방학이 끝나서 체육복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가 너무 짧았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입고 갔는데 친구들이 막 놀렸어 				· 연상하기

단 계 (시간)	학습과정	학 습 활 동 내 용	주요전략
문 제 (5')	<p>-삽화 보며 예견하기</p> <p>· 학습문제 파악</p> <p>· 학습문제 확인</p>	<p>요, 그래서 속상해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우리 경호 키가 아주 많이 컸네.”라고 해주셔서 위로가 되었어요.</p> <p>· 그래요, 선생님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한번쯤은 경호와 같은 경험을 해 본적이 있을 거예요. 그 때 일을 떠올리면서 교과서 46쪽의 그림을 보세요.</p> <p>· 어떤 표정들인가요? -흐뭇한 표정들입니다. -밝게 웃는 것으로 보아 아주 기뻐가봐요.</p> <p>· 무엇을 보고 있나요? -아버지의 짧은 바지를 보고 있습니다.</p> <p>· 왜 저렇게 짧은 바지를 입고도 기뻐할까요? 바지가 짧아서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텐데.</p> <p>-혹시 아버지가 바지를 줄여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딸이 실수를 해서 너무 많이 줄여버린 것이 아닐까요? -맞아요. 마음씨 좋은 아버지는 딸이 실수를 한 일이니까 화를 안 내고 웃으면서 칭찬을 해 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걱정했던 딸도 활짝 웃고 있는 것 같아요.</p> <p>· 모두 이야기를 참 잘 했어요. 이 그림에는 여러분 이야기처럼 일을 잘 하려다 실수를 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왜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선생님, 그 이유는 책을 읽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p> <p>-아하, 그렇구나. 오늘 공부할 문제가 바로 이 이야기처럼 된 원인과 결과를 찾는 것 같다.</p> <p>· 맞아요. 이제 공부할 문제도 스스로 잘 찾아내고 있어요. 다같이 공부할 문제를 이야기해 볼까요?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합시다.</p>	<p>· 연상하기</p> <p>· 예견하기</p> <p>· 학습문제는 아동들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p>

단 계 (시간)	학습과정	학 습 활 동 내 용	주요전략
이 해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문제 해결방법 모색 - 학습에 관련된 내용 살피기 - 학습방법 분석 - 학습순서 파악 · 교과서를 부분적으로 읽고 추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할 문제를 잘 이야기했어요. · 공부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 모둠별로 공부할 문제 해결 방법을 구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각 모둠별로 공부할 문제 해결 방법과 순서를 의논한다. · 모두들 진지하게 의논들을 잘 해 주었어요. 그럼 즐거운 모둠에서 발표를 해 주세요. - 예. 우리 모둠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알아내려면 내용을 잘 알아야 되니까 교과서를 여러 번 읽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강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다음에는 질문을 만들면서 읽고, 마지막으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자는 의논을 했습니다. - 선생님, 우리 셋별 모둠에서 보충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재미있는 동화 같으니까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추론하기 전략을 사용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재미있겠다는 의논을 했습니다. · 아주 좋은 생각이군요. 다른 모둠 생각은 어떤가요? - 예. 즐거운과 셋별 모둠이 발표한 방법을 모두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추론하고 대강 훑어보고 다음은 자세히 읽으면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 훌륭해요. 추론하는 부분은 선생님이 제시 해주도록 하겠어요. 아참, 추론할 때에는 반드시 추론을 하게 된 근거도 밝혀야 되는 것 잊지 않았지요? · 그림 교과서 49쪽 10줄까지 빨리 읽고 뒷부분을 추론해 봅시다. - 글을 읽고 뒷부분을 추론한다. · 추론한 이야기를 발표해 보도록 합니다. - 밖에서 아버지가 말을 해서 딸들이 한 뺨만 줄여 달라고 한 것을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론하기 추론활동을 통해 이야기의 상상은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음을 알고 또한 상상한 이야기에 대한 근거를 말해야 하는 중요성을 알게 한다.

단 계 (시간)	학습과정	학 습 활 동 내 용	주요전략
사 고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인과 결과 생각하며 글읽기 · 원인과 결과 생각하며 이야기하기 · 뒷이야기 상상하여 말하기 	<p>첫째 딸의 키보다 조금 더 길게 맞추어 줄여 놓아서 바지가 짧아진 것 같아요.</p> <p>-바지를 한 뼘 줄여 달라는 아버지의 이야 기를 들은 딸들은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 딸이 줄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첫째 딸이 잠 빡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바지를 줄여 놓은 것을 가져오라고 하자 당황해서 급하게 하다가 길이를 많이 줄여 버린 것 같 아요.</p> <p>-제 생각은 좀 달라요. 딸들이 효성스럽다고 했 잖아요.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딸들은 바지를 줄여야 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 딸이 전부 바지를 한 뼘씩 줄여 놓아서 짧아진 것 같은데요</p> <p>· 모두들 추론한 근거를 들면서 이야기를 잘 해 주었어요. 그럼 추론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50쪽 18줄까지 읽고 이어질 이야기를 추론해 보세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p> <p>-추론한 내용을 확인하며 정해진 장면까지 이 야기를 읽고 뒷이야기를 추론한다.</p> <p>· 추론한 내용을 발표해 보세요.</p> <p>-부자의 세 딸은 모두 하기가 싫었어요. 첫째와 둘째가 억지로 막내에게 시켰어요. 막내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바느질도 서툴어서 바지가 너 덜너덜해졌을 것 같아요.</p> <p>-부자의 세 딸은 한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건성 으로 듣고 바지를 줄여 놓지 않았을 것 같아요.</p> <p>-세 딸은 서로 일을 미뤘어요. 그래서 바지를 아무도 줄여 놓지 않은 것 같아요.</p> <p>· 여러분들이 상상한 이야기가 참 재미있어요. 그럼 추론 내용을 확인하고 이야기를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p> <p>-추론내용을 확인하며 이야기를 읽는다.</p> <p>· '짧아진 바지'를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 관점 제 시 · 추론하기

단 계 (시간)	학습과정	학 습 활 동 내 용	주요전략
표 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 각 더하기 - 글 내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하기 	<p>시 읽어봅시다.</p> <p>-이야기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아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별로 돌아가면서 선비의 딸과 부자의 딸들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이야기를 해 봅시다. -동아리별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한다 -선비의 딸들은 아버지의 부탁에 서로 자기가 하려고 해서 바지를 짧게 줄여서 효성스런 딸들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부자의 딸들은 아버지의 바지를 서로 마루고 줄이지 않아서 효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이야기를 잘 했어요. '짧아진 바지의 뒷부분을 상상하여 봅시다. 부자는 세 딸에게 어떻게 하였을까요? -배신감을 느낀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주고 딸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신심으로 효도하는 딸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딸들의 교육을 위해 새 훈장님을 모셨을 것입니다. -선비의 딸들 이야기를 들려주고 스스로 반성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부자의 딸들을 선비의 집에 보내어 일을 하면서 참다운 효성을 배우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 '짧아진 바지'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정리도 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도록 하세요. -체재 글의 각 문단에 어울리도록 소주제, 제목 붙이기 -주요 내용에 관련된 나의 생각 발표하기 -체재 글에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더 알고 싶은 점 이야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기 · 의견 다루기(PMI) · 마인드맵

단 계 (시간)	학습과정	학 습 활 동 내 용	주요전략
표 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 각 더하기 - 글 내용과 관련 하여 여러가지로 생각하기 · 정리 및 평가 · 차시예고 	<p>- 선비의 딸들이 효성스럽긴 한데 생각이 모자란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선비의 큰딸이라면 아버지의 바지를 줄었다고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서예요. 그랬더라면 바지가 못 입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p> <p>- 저는 제목을 '부자의 한숨'이라고 짓고 싶어요. 딸들의 효도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된 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p> <p>- 저는 '효도'라는 주제로 마인드 맵을 해 보았어요.</p> <p>- 저는 편찮으신 어머니를 위해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그릇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얼른 치우려다가 손을 베어서 더 걱정만 끼쳐드렸던 일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나의 실수'란 제목으로 글을 써 봤어요.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났는지 모르겠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굉장하군요. 수지가 글짓기도 하고 공부한 내용도 정리를 했으니까 이런 경우를 두고 일석이조라고 하겠군요. <p>- 선생님, 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금붕어를 사오셨어요. 저는 금붕어가 배고플까봐 저녁에 먹이를 주고 또 걱정이 되어서 잠을 자기 전에 또 주었어요.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불쌍하게도 금붕어가 죽어 있었어요. 이유를 알아 봤더니 제 동생도 저처럼 먹이를 주었어요. 불쌍하게도 금붕어가 죽고 말았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랬군요. 모두들 이야기를 참 잘 했어요. '짧아진 바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읽을 때는 학습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거나 또는 중요한 부분, 아름답거나 감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된 부분만 읽어도 좋습니다. <p>- 정리, 재밌으면서 읽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평가 또는 자기평가, 상호평가 · 차시예고 및 예습적 과제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기 · 의견 다루기(PMI) · 마인드 맵

<표 7> 비문학 교재

일시	1999. 11. . 2교시	쪽 수	읽기 89- 91쪽	시간	40분
단원	11.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3/7)	학습 주제	새로운 사실 말하기		
학습 목표	· 글을 읽고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말할 수 있다.			창의적 사고요소	유창성 유연성 독창성
단계 (시간)	학습과정	학 습 활 동 내 용			주요전략
문제 (5')	· 학습동기 유발 · 학습문제 파악	<p>· 단원명이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인데 제목으로 보아 이 글은 어떤 종류의 글일까요? -설명문 같습니다. 설명문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는 말에서 설명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p> <p>· 이야기를 참 잘 해 주었어요. 이 글은 설명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나요? -책을 읽어서 알게 됩니다. -백과사전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p> <p>· 교과서 89쪽의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래’에 대해 아는 내용을 말해 보세요. -고래는 새끼를 낳아요. -고래는 등으로 물을 뿜어요. -돌고래도 있어요. -고래는 똑똑해서 묘기도 잘 부려요.</p> <p>· 그림 선생님께서 ‘고래’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말해 보세요. (‘고래’에 대해 몇 가지를 들려준다.) -저는 고래가 젖으로 새끼를 키운다는 것을 새로이 알았어요. -저는 고래가 물위에 떠서 폐로 호흡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고래는 몸길이 4~5미터일 때 ‘고래’라 하</p>			· 연상하기 · 예견하기

단 계	학습과정	학 습 활 동 내 용	주요전략
이 해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문제 파악 · 학습문제 확인 · 학습문제 해결방법 모색 	<p>고 그 이하일 때 '돌고래'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래'에 대한 이야기가 참 신기하고 새로운 것이 많지요? 그럼 이번 시간에 무엇을 공부하게 되는지 짐작할 수 있나요? -예. 글을 읽고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말하여 보는 공부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글을 읽으면서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 이 시간에 공부할 제재는 '대나무와 죽순'입니다. 이것들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해 볼까요?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순을 죽순이라고 합니다. -죽순으로 요리도 합니다. -대나무로 물건도 만듭니다. · '대나무와 죽순'에 대해 많이 알고 있군요. 이에 대해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학습방법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구상한다. -모둠별로 의논한다. -해결방법과 순서를 파악한다. · 이 시간 학습방법에 대해 의논이 다 되었으면 발표해 볼까요? -예. 행복 모둠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모둠에서는 우선 '대나무와 죽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공책에 적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과서를 읽으면서 새로이 알게 된 사실에 밑줄을 그으면서 읽고 또다시 읽을 때에는 공책에 정리하면서 읽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선생님, 글을 읽기 전에 예견하는 것도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상하기 · 예견하기

단계	학습과정	학 습 활 동 내 용	주요전략
사 고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견하기 · 교과서 읽 기 -바르게 읽 기 -생각하며 읽 기 · 글의 내용 파악하기 	<p>· 예. 모두 학습방법과 순서를 진지하게 의논을 잘 해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말한 내용을 선생님이 종합해서 학습방법과 순서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학습문제 밑에 제시해 준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글을 읽기 전에 글의 주제, 내용, 낱말, 어휘, 글의 짜임 등을 예견하기 ② '대나무와 죽순'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 직기 ③ 예견한 내용을 확인하며 글 읽기 ④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하기 ⑤ 생각 더하기 <p>· 글을 읽기 전에 글의 내용을 예견해 봅시다. -학습지를 해결하며 글의 내용을 예상한다. · '대나무와 죽순'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정리해 봅시다. -학습지에 성리한다. · 글을 바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0쪽, 91쪽의 글을 지명 받은 4명의 어린이가 읽는다 이 때 목소리의 크기, 발음의 정확성, 읽기의 속도 등을 교정해 준다. · 바르게 잘 읽었습니다. 이제는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을 때 무엇을 생각하며 읽어야 할까요? -글의 내용을 생각하며 읽습니다. -예견한 내용을 확인하며 읽습니다.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각자 교과서 90, 91쪽을 묵독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견 목록 교정하기 -소집단별로 질문 만들기 -질문에 대답하기 -예로부터 마을 주변에 대나무 숲이 많았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후죽순 같다'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말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견하기 · 글을 읽는 관점 명확히 제시 소집단 활동은 모든 아동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가능한 한 말하기에 모두 참여하도록 한다.

단계	학습과정	학 습 활 동 내 용	주요전략
	<p>· 차시 예고</p> <p>· 예습과제</p> <p>제 시</p>	<p>내용을 예견할 수 있겠어요.</p> <p>-저는 죽순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순'에 대해서 홍보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죽순 요리를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p> <p>· 참 기발해요. 어머니께서 호뭇하시겠어요.</p> <p>-저는 '죽순'과 '떡볶이'를 짝지어 봤습니다. 몸에 좋은 죽순과 어린이들이 잘 먹는 떡볶이를 짝지어서 맛있는 죽순 떡볶이를 만들면 일석이조일 것 같아요.</p> <p>· '죽순떡볶이'라 그럴듯한데요.</p> <p>-저는 대나무를 주제로 하여 마인드 맵을 해 보았습니다.</p> <p>· 모두들 참 기발하고 창의적인 생각들이군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p> <p>-책을 많이 읽어야 해요.</p> <p>-백과 사전이나 참고서 같은 전문 서적도 많이 읽어야 해요.</p> <p>· 그래요.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늘 책을 친구처럼 좋아하여 백과사전처럼 아는 것이 많고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 시간이 끝난 후 작품 게시대에 꽃아 놓도록 하세요.</p> <p>· 다음 시간에는 '날씨와 생활'에 대해 공부합니다. 소풍을 갈 때, 운동회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p> <p>-당연히 날씨죠. 저는 밤에도 몇 번 깨요. 비가 오나 걱정이 되어서 그런지.</p> <p>· 예. 그것은 태완이만 그러는 것이 아닐 거예요. 이렇게 날씨는 우리들 생활과 관련이 많지요. 집에서 신문이나 잡지, 백과사전, 참고서, 인터넷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날씨와 관련된 글을 읽고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찾아보도록 합니다.</p>	

IV. 결론

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에게 사고를 언어로 표현하고, 또 언어를 통해 사고를 이해하는 고능정신기능을 신장시켜 주는 것이다. 이 연구는 국어과 교육에서의 사고력 신장, 그 중에서도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읽기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II상에서는 읽기와 창의적 사고에 관한 논의를 정리해 보았다. 읽기를 글 측면을 강조한 상향식 모형, 독자 측면을 강조한 하향식 모형, 글과 독자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상호작용모형으로 살펴보고, 읽기에 대한 여러 논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읽기의 개념과 성격을 정리하였다. 읽기는 글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글자를 의미로 옮기는 단순 과정이 아니다. 여러 정보들에 대해 기억, 사고, 분석, 추리, 비판하고 이것을 통합, 조정하여 의미를 재구성하는 복잡한 고등 정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읽기 기능들은 어떤 종류의 위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읽기 기능은 엄격히 구분하여 위계화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읽기의 각 요소들은 서로 상호작용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글의 내용에 따라 사고를 요하는 정도가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읽기를 위해서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의 과정에 따른 전략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창의적 사고력 신장이라 할 때의 창의적 사고력의 개념을 지적 능력, 정의적 특성, 문제 해결력, 종합 행위로 구분 지어 살펴보았다. 창의적 사고는 제2차적 사고, 발산적 사고 직관적 사고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정한 반응에 얽매이지 않고 무엇인가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산출해 내는데 사용되는 지적 과정이다. 창의적 사고력과 관련되는 연구를 살펴보면 인지적 능력의 하위 요인 중 공통 요인으로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들이다.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수업활동 속에서 이러한 하위 요인들을 신장시키기 위한 지도기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추론하기, 예견하기, 브레인스토밍,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기, 관계없는 것끼리 짝짓기, 의견 다루기(PMI), 마인드 맵하기, 발문기법 같은 학습전략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를 학교 수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직접교수법의

절차에 의해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해서는 교사의 발문은 확산적 발문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효과적 발문기법을 학습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창의적 사고와 국어과 읽기 교육과의 관계에서 국어과 교육에서의 읽기 영역이 사고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밝혀 사고력 신장 기능으로서의 국어과 읽기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Ⅲ장에서는 Ⅱ상의 이론과 기존 읽기 수업 모형을 고찰하여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읽기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적용해 보았다. 읽기 수업의 내용은 글 속에 담긴 글의 내용이 아니라 글을 이해하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소극적인 수용자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수용자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수-학습 방법이 요청된다. 이에 읽기 교수-학습 모형을 문제 → 이해 → 사고 → 표현의 4단계로 구안하였다. 문제단계에서는 학습동기 유발과 공부할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 이해단계에서는 학습문제 해결 전략을 선택하는 과정, 사고단계에서는 전략에 따른 자기 주도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 표현단계에서는 글 내용에 관련하여 생각을 더하여 표현하는 과정이다. 각 학습 단계별로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이 전개되도록 하였다. 교수-학습 모형은 문학교재와 비문학교재로 나누어 글의 유형과 특성에 맞게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창의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교사나 다른 어린이들로부터 두려움을 받지 않는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 자유롭게 토의하고 구상하고 발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확산적이고 발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둘째,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교사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이 전개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교수-학습활동의 주체가 되었을 때 학생들은 흥미를 갖게 되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사고하고,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숙한 독자가 된다.

셋째, 읽기 지도는 독해의 과정을 중심으로 글을 읽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는 글을 읽기 전, 읽는 동안, 읽은 후 이 과정에 적절히 개입해서 학생들이 읽는 방법과 전략을 터득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독자는 읽기에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글의 내용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사고하게 된다

넷째, 교사는 학생의 사고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확산적 발문을 사용해야 한다. 즉 교사는 학생들의 지적 사고 활동을 촉진시키고 보다 더 폭넓은 사고, 반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훌륭한 발문사이어야 한다.

다섯째,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읽기 교수-학습 모형이 시급히 정립되어야 하겠다. 창의적 사고력은 정상적인 학교교육 활동 속에서 교과 교육과 연계되어 지도될 때 더욱 신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읽기 교수-학습 모형 정립이 실질히 요청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차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사고력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시급히 개발·일반화되어야 한다.

둘째, 창의적 사고력은 정상적인 학교교육 활동 속에서 교과 교육과 연계되어 지도될 때 더욱 신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각 교과별 교수-학습 모형 정립이 실질히 요청된다.

셋째, 수준별 학습 운영 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청된다. 최상의 방법이라 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에게 다 적용될 수는 없다. 학습자마다 사고의 발달 정도, 능력, 흥미도 다르고, 학습하는 방식도 다 다르다. 따라서 학습자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수준에 맞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수준별 교육과정은 2000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에 적용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의 핵심이다.

끝으로 이 논문의 제한점에 밝혔듯이 구안된 교수-학습 모형을 현장에 적용시켜 그 효용성을 검증해 보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앞으로 구안된 교수-학습 모형을 현장에 끊임없이 적용하면서 검토·수정·보완하여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읽기 교수-학습 모형을 정립해 나가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자료>

- 강충렬 외 공저(1997), 「창의력개발프로그램 ①~⑥」, 대한교과서.
광주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1991), 「학습방법의 실제」, 문헌각
교육부(1993), 「초등학교 교육과정해설(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1999), 「초등학교 3학년 읽기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1999), 「초등학교 3학년 국어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노명완·손영애·이인제(1989), 「국어과 사고력 신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안
탐색 - 초등학교 국어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박경숙·임부순·박효징(1988), 「학습 전략 프로그램 개발(1), (II)」, 한국교육개발원.
성일제 외(1987),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I)」, 한국교육개발원.
—— (1988),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이영덕·정원식(1971), 「창의성 검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전라북도교육연구원(1993), 「국어과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자료」, 전라북도교육연구원.
제주도교육청(1996), 「창의성교육」, 제주도교육청.
허경철 외(1989),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III)」, 한국교육개발원.
—— (1989), 「배우며 생각하며」, 한국교육개발원.
—— (1989), 「배우며 생각하며 교사용 지도서」, 한국교육개발원.
—— (1990),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IV)」, 한국교육개발원.
—— (1991),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V)」, 한국교육개발원.

<단행본>

- 김영채(1990), 「학습과 사고의 전략」, 교육과학사.
김종호(1999), 「자녀의 인성과 창의성, 두 마리 토끼잡기」, 교육과학사.
김창묵(1987), 「종합교육학신강(상)」, 일문각.
노명완(1988), 「국어 교육론」, 한샘.
노명완 외(1996), 「국어과 교육론」, 갑을출판사.
류성기(1999), 「국어과 교육의 실제화 연구」, 교육과학사.
박권생·손기준 공역(1991), 「여섯가지 사고모」, 교육과학사.
박봉배(1976), 「국어과 교육론」, 일조각.
—— (1998), 「국어교육학론」, 한샘.
박수자(1994), 「독해와 읽기 지도」, 국학 자료원.

- 박영목 외(1995),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탐구」, 교학사.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1993), 「사고력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_____ (1994), 「수업방법의 이론과 실제」,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 서울특별시교육청(1995), 「창의성 교육 문을 열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 신세호 역(1984),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 교육과학사.
- 신세호·임선하(1984), 「창의적 사고 수업모형」, 한국교육개발원 .
- 신헌재 외(1993), 「독서교육의 이론과 방법」, 서광학술자료사.
 _____ (1993),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박이정.
- 신헌재·이재승 편(1994), 「학습자 중심의 국어교육」, 서광학술자료사.
- 윤정돈외 공저(1991), 「학습/사고전략의 실제」, 교육과학사.
- 윤종건(1990), 「창의력」, 정민사.
- 이성영(1995), 「국어 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임선하(1994), 「창의성에의 초대」, 교보문고.
- 전라남도초등국어연구회(1997), 「국어과 열린수업방법」, 교육과학사.
- 전현선·윤정분·손기준·이우연 공저(1990), 「학습과 사고의 전략」, 교육과학사.
- 정동화·이현복·최현섭(1986), 「국어과 교육론」, 선일문화사.
- 천경록, 이재승(1998), 「읽기 교육의 이해」, 우리 교육.
- 초등국어교육학회(1997), 「국어 수업 방법」, 도서출판 박이정.
 _____ (1999), 「읽기수업방법」, 도서출판 박이정.
- 최현섭 외(1993), 「초등 학교 국어교과의 수업 모형·수업방법·평가방법 및 평가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양출판사.
- 최현섭 외(1995), 「국어교육학의 이론화 탐색」, 일지사.
- 최현섭 외(1996), 「국어 교육학 개론」, 삼지원.
- 한철우·박영목·윤희원(1995),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탐구」, 교학사.

<논문>

- 김계순(1991), “교사의 질문활용실태와 개선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남경(1993), “내발적 동기와 창의적 사고력의 관계,” 碩士學位論文,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라경(1997), “Parnes의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 적용이 초등학교 아동의 창의성 신장에 미치는 효과,” 碩士學位論文,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용국(1990), “학습단계별 발문의 기본적 입장,” 「교육연구」, 교육개발원.
- 김용국(1988), “교사의 창의력 수준에 따른 학습지도 방법의 차이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 분덕찬(1995), “어휘지도를 통한 언어사용능력 신장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수자(1993), “읽기 전략 지도 교재 구성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중호(1997), “창의적 읽기 지도 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송재학(1984), “창의력 계발을 위한 학습모형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전북대학교 대학원.
- 심혜옥(1994), “국어과 읽기 교수-학습 모형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안연숙(1991), “초등학교 아동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碩士學位論文,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원새연(1994), “de Bono의 CoRT 사고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생의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경균(1998), “의미 관계에 바탕을 둔 읽기 능력 신장 방안,” 碩士學位論文,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미경(1990), “질문유형(발산적-수렴적)이 초등학교생의 창의성 신장에 주는 효과 연구,” 碩士學位論文,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우청(1999),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국어교육 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은규(1989), “교사의 발문수준이 아동의 창의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碩士學位論文,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이재승(1992), “듣기 기능과 읽기 기능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임준연(1992), “창의성 수업모형의 효과 연구,” 碩士學位論文,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전점영(1992), “비판적 읽기 지도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 훈(1996), “텍스트 이론을 통한 독해력 신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주금평초등학교(1990), “언어적 사고방법 훈련을 통한 언어 표현 이해 기능 신장”.
- 최수길(1996), “초인지 유형에 따른 발문수준 적용이 창의성 신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최영희(1993), “읽기 지도 요소 연구,” 碩士學位論文,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한정혜(1993), “Gordon의 창의성 수업모형 적용이 아동의 창의성 신장에 미치는 영향,” 碩士學位論文,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한철우(1991), “국어과 교수-학습 모형 및 책략,” 『한국어문교육』, 제2집.

<Abstract>

A Study of the Teaching & Learning Methods of Reading for Creative Thinking Extension

Yun, Jeong-Ea

Korean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Moon, Sung-Sook

The ultimate aim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to extend the students' high spiritual functions which help them express and understand their thinking through language. This study aims at presenting teaching-learning methods of reading which can extend the students' creative thinking.

In Chapter II, I have organized discussions on reading and creative thinking through literature research. Reading can be divided into three parts as illustrated by the following models; the first is the bottom-up model which emphasizes the writing side, the second is the top-down model which emphasizes the reader's side and the last, is the interactive model which emphasize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writing and the reader. I have put together opinions of several disputants about reading and then synthesized their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Also, I have made it clear that the elements of reading do not have any specific hierarchy. Wanting to emphasize the learner's active participation, I have presented strategies before reading, during reading and after reading, all in order to help understand what is being read more effectively.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r Education in August, 2000.

I have come to several conclusions about intellectual ability. These conclusions deals with definable character, ability to solve problems and comprehending abilities through creative thinking. Creative thinking is seen as a course used in producing something unique. Sub-factors of cognitive ability are fluency, flexibility, originality and elaboration. The technique is presented to make progress in these abilities within the activities of normal school education. After developing learning strategies such as reasoning to increase creative thinking , predicting, brain-storming, thinking outside one's environment, putting together parts not related to each other, dealing with opinions and mind-mapping, I applied these strategies to the 3rd-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4 weeks. Teacher's questioning should be divergent to be effective according to the learning steps.

I have found that the area of reading is closely related to the ability to think. In fact, reading can be used as a means to improve thinking power.

In chapter III, I have framed and applied the teaching & learning model of reading to extend the creative thinking power of the students according to the theory from chapter II, and the research on the established reading lesson model. The reading lesson must be a means to understand the writing, not the means to understand the content in that writing. This means that the students must escape from being passive receivers and become active participants. A new teaching & learning technique is requested so the students can read the writings for themselves. Therefore, I have framed a teaching & learning model with 4 steps: questioning -> understanding -> thinking -> expressing. "Questioning" is a process to bring about learning motives. "Understanding" is a process to choose strategies to solve the questions. "Thinking" will solve the task according to such strategies. The last step is a process that the learner put together and "express" their thoughts after understanding the content of the writing. These steps lead to a 'newness' through the course of framing, expressing, and arranging. The teaching & reading model has been apphed to the 3rd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during reading lessons for 14 weeks

As a result of this study, I have found that the students' environment should be made to promote creative thinking first and foremost. The lesson should be changed to learner-centered teaching & learning from the teacher-centered teaching by encouraging

the students to participate in the lesson more actively. Teachers must use reading techniques which focus on comprehension. The teacher also should be a good questioner using divergent questions to help promote students thinking abilities. In addition, the teaching & learning model must be framed as soon as possible.

